

보고서

---

# 『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 용역

---

연구수행기관 : [유]이언

최종보고서





# 목 차

## I. 개요 및 배경

- 1. 연구 목적 및 범위 ..... 5
- 2. Global Top10 City INCHEON 비전 ..... 6

## II. 국내외 투자환경 분석

- 1. 글로벌 FDI 동향 및 전망 ..... 7
- 2. 국내 투자 환경 및 정책 변화 ..... 8
- 3. 인천시 투자 현황 및 특성 ..... 9
- 4. 인천시와 비슷한 입지와 산업을 가진 국내외 도시에 대한  
투자유치 성공 사례 분석 ..... 10

## III. 산업별 동향 및 인천의 경쟁력 분석

- 1. 바이오 산업 ..... 31
- 2. 반도체 산업 ..... 32
- 3. 물류 산업 ..... 34
- 4.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 35
- 5. 관광 산업 ..... 37
- 6. 수소 산업 ..... 38
- 7. 기후테크 산업 ..... 39
- 8. 로봇 산업 ..... 41

## IV. 산업별 인천시 정책 및 투자환경 분석

- 1. 바이오 산업 ..... 43
- 2. 반도체 산업 ..... 44
- 3. 물류 산업 ..... 46
- 4.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 47
- 5. 관광 산업 ..... 48
- 6. 수소 산업 ..... 50
- 7. 기후테크 산업 ..... 51
- 8. 로봇 산업 ..... 53

## V. 산업별 사업 모델

1. 바이오 산업 .....	55
2. 반도체 산업 .....	56
3. 물류 산업 .....	58
4.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	60
5. 관광 산업 .....	62
6. 수소 산업 .....	64
7. 기후테크 산업 .....	65
8. 로봇 산업 .....	67

## VI.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수립

1. 바이오 산업 .....	70
2. 반도체 산업 .....	72
3. 물류 산업 .....	73
4.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	76
5. 관광 산업 .....	78
6. 수소 산업 .....	81
7. 기후테크 산업 .....	86
8. 로봇 산업 .....	86

## VII. 투자유치 타겟기업 발굴

1. 타겟기업 발굴 방법론 .....	89
2. 사업모델별 타겟기업 및 선정 이유 .....	90

I

## 개요 및 배경

### 1 연구 목적 및 범위

####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가 'Global Top10 City INCHEON'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천시가 세계적인 투자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 주요 연구 목표

- 인천시 투자환경의 종합적 진단 및 경쟁력 분석
- 8대 전략산업별 글로벌 트렌드 분석 및 인천의 위상 평가
- 산업별 최적 사업모델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 타겟기업 선정 및 맞춤형 유치전략 제시
- 국내외 성공 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투자인센티브 체계 개선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

- 인천시 투자환경의 종합적 진단 및 경쟁력 분석
- 8대 전략산업별 글로벌 트렌드 분석 및 인천의 위상 평가
- 산업별 최적 사업모델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 타겟기업 선정 및 맞춤형 유치전략 제시
- 국내외 성공 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투자인센티브 체계 개선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

#### □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과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을 다룸.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포함하며, 단기적 실행과제와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두 제시함.

구분	내용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전체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 중심)
시간적 범위	2025년~2040년 (단기 5년, 중기 10년, 장기 15년)
산업적 범위	8대 전략산업 (바이오, 반도체, 미래형모빌리티, 물류, 관광, 수소, 기후테크, 로봇)
정책적 범위	투자유치 정책, 인센티브 체계, 지원제도, 인프라 구축

## 2 Global Top10 City INCHEON 비전

### □ 비전 개요

- 인천광역시는 2040년까지 세계 10대 투자도시로 성장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 하였음. 이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허브로 발전하겠다는 의미임.
- Global Top10 City INCHEON 핵심 가치

- 혁신(Innovation):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허브
- 연결(Connectivity): 동북아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우위 활용
- 지속가능(Sustainability): ESG 경영과 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 포용(Inclusiveness): 글로벌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 II

## 국내외 투자환경 분석

## 1 글로벌 FDI 동향 및 전망

## □ 글로벌 FDI 현황

○ 2024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조 3,50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투자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보호주의 정책 등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 2024년 글로벌 FDI 주요 특징

- 미국이 전체 FDI의 21.3%를 차지하며 최대 투자 유치국 지위 유지
- 중국은 전년 대비 8.7% 감소하며 FDI 유치 둔화
- 동남아시아는 15.6% 성장하며 새로운 투자 허브로 부상
- ESG 투자가 전체 FDI의 35%를 차지하며 급속 확산

순위	국가	FDI 유치액(억 달러)	전년 대비 증감률	주요 투자 분야
1	미국	2,875	+7.2%	반도체, 바이오, 클린에너지
2	중국	1,805	-8.7%	제조업, 물류, 금융
3	싱가포르	1,120	+12.3%	금융, 물류, 바이오
4	홍콩	890	-3.5%	금융, 물류, 디지털
5	영국	750	+9.1%	핀테크, 바이오, 제조업

## □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변화

○ 공급망 다변화 및 리쇼어링: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투자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 중국 집중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이 확산되고 있음.

○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빅데이터, IoT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2024년 전체 FDI 중 디지털 관련 투자는 28.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음.

- ESG 투자 주류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가 투자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클린에너지, 수소, 배터리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 국내 투자 환경 및 정책 변화

### □ 한국 FDI 현황

- 2024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245억 달러, 실행 기준 19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3%, 8.7% 증가한 수치로, K-뉴딜과 한국판 그린딜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	신고액(억 달러)	실행액(억 달러)	신규 설립(건)	주요 투자 분야
2020	198	156	2,563	제조업, 서비스업
2021	219	171	2,784	바이오, 반도체
2022	201	165	2,901	배터리, 디스플레이
2023	218	182	3,156	반도체, 이차전지
2024	245	198	3,428	AI, 바이오, 수소

### □ 산업별 투자 동향

- 한국 FDI의 산업별 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42.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특히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산업별 FDI 비중 (2024년 기준)

- 제조업: 42.1% (반도체 15.2%, 바이오 8.7%, 이차전지 6.8%)
- 서비스업: 35.8% (금융 12.3%, 물류 9.1%, IT서비스 8.4%)
- 건설업: 12.4% (부동산 개발, 인프라 구축)
- 기타: 9.7% (농업, 광업 등)

- 지역별 투자 현황: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FDI의 68.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음. 특히 경기도가 29.1%, 서울시가 21.4%, 인천시가 17.7%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	투자액(억 달러)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주요 투자 분야
경기	71.3	29.1	+15.2%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서울	52.4	21.4	+8.9%	금융, IT, 바이오
인천	43.4	17.7	+22.1%	바이오, 물류, 항공
부산	18.9	7.7	+11.3%	조선, 물류, 관광
기타	58.5	23.9	+6.7%	제조업, 서비스업

### 3 인천시 투자 현황 및 특성

#### □ 인천시 FDI 현황

- 인천시는 2024년 43.4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전국 3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22.1%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 12.3%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임.

#### ○ 인천시 FDI 성과 (2024년 기준)

- 투자 신고액: 43.4억 달러 (전년 대비 +22.1%)
- 투자 실행액: 36.8억 달러 (전년 대비 +18.7%)
- 신규 설립 건수: 645건 (전년 대비 +15.3%)
- 고용 창출: 15,200명 (전년 대비 +28.4%)

#### □ 권역별 투자 현황

- 인천시 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전체 투자의 47.3%를 차지하며, 영종국제도시 21.8%, 청라국제도시 15.2%가 뒤를 잇고 있음.

권역	투자액(억 달러)	비중(%)	주요 산업	특성
송도	20.5	47.3	바이오, IT, 금융	국제업무단지, R&D 허브
영종	9.5	21.8	항공, 물류, 관광	공항 연계, 물류 허브
청라	6.6	15.2	IT, 금융, 제조업	업무·주거 복합
기타	6.8	15.7	제조업, 서비스업	기존 산업단지

○ 투자 유치 경쟁력: 인천시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투자 유치 경쟁력을 보유함.

- 지리적 우위: 동북아 중심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보유
- 인프라 우수성: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
- 산업 클러스터: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정책적 지원: 경제자유구역, 각종 인센티브 제도
- 생활 여건: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의료, 주거 환경

## 4

### 인천시와 비슷한 입지나 산업을 가진 국내외 도시에 대한 투자유치 성공사례 분석

#### □ 요약

도시	주요 정책 및 전략	인센티브 및 혜택	성공 사례	투자유치 실적
싱가포르	EDB 중심 우선순위 산업 선정 (전자·반도체·건설) 및 클러스터링, 'Host to Home' 전략으로 MNCs 아시아 거점화	법인세 감면, R&D 400% 세액공제, 영주권 부여, 이익 자유 환수	다이슨 글로벌 본사·배터리 공장, 페이팔·라쿠텐·트위터 R&D 센터 유치, 바이오·첨단제조 클러스터 조성	2023년 FDI 1,596억 달러(세계 3위), 2024년 1,920억 달러 증가, 금융·제조업 중심(미국·일본 투자)
타이베이	'스마트 타이완' 및 '5+2' 산업혁신계획(ICT·바이오·녹색에너지), 신남방정책, TEH 스타트업 허브 구축	R&D 25%·설비 5% 법인세 감면(칩스법), SBIR·SIIR 보조금, 타이베이 R&D 최대 500만 대만달러 지원	Appier(유니콘)·Gogoro·Just Kitchen 스타트업 성장, TSMC·ASUS·Acer 반도체·ICT 집적	2024년 FDI 2,221건(78억 달러), 2025.1월 1.11억 달러(88.94% 증가), 신재생·반도체·바이오 중심
요코하마	'기업 입지 유치 조례'(2004), 미나토 미라이 21 도시재생, 'Innovation City Yokohama' 선언(2019)	본사·R&D 최대 50억 엔 보조금, 임대료 최대 5억 엔, 스타트업 비자·인큐베이션 지원	닛산·후지제록스·LG전자 본사·R&D 집적, YOXO BOX·Tech Hub Yokohama 스타트업 허브	2021/22 fDi '글로벌 도시 미래' 3위, 미나토 미라이 1,800개 기업·200개 글로벌 본사 집적

도시	주요 정책 및 전략	인센티브 및 혜택	성공 사례	투자유치 실적
함부르크	장기 도시개발 (HafenCity-Science City), Hamburg Invest PPP 강화, 스타트업·첨단산업 클러스터	연방·주시 보조금·R&D 지원, 스타트업 자금 500만~1,000만 유로, 근로자 교육 보조금	Gamecity·Media City 클러스터, ContiTech·Garz & Fricke 200개 첨단기업 집적, TUHH 산학연 협력	2019년 1,100개사 지원·6억5,600만 유로 유치·11,530일자리, 스타트업 투자 2위(2억9,600만 유로)
상하이	FTZ(2013)·'마이너스 리스트'·'2025 외국인투자 안정화 계획', 산업맵(2018·2023 개정)	법인세·토지 감면, R&D 세액공제, FT계좌 자금 자유화, 외국인 비자 신속 처리	테슬라 기가팩토리·모더나 바이오·다나허 R&D, 루자주이 122개 금융기관 집적	2023년 240억 달러(최고치), 2024.1Q 78억 달러(고기술 45.9%↑), 907본사·538 R&D 센터
홍콩	InvestHK 운영, New CIES(2024, 3,000만 HKD 투자 영주권), 스타트업 1,500억 HKD 지원	법인세·R&D 세액공제, 300억 HKD 펀드, Top Talent Pass Scheme, 청년 고용 보조금	KLOOK·WeLab·Lalamove 유니콘 성장, 글로벌 본사·R&D 집적(금융·혁신 클러스터)	2023년 FDI 1,126억 달러(세계 4위), 2024 InvestHK 539개 기업·87억 달러·6,864일자리
선전	SEZ(1980s)·'2025 상업·투자 지원정책', 네거티브 리스트, 글로벌 본사·R&D 유치	투자 1~3% 보상(최대 5천만 위안), 법인세 감면·R&D 공제, 외국인 비자 지원	테슬라·BYD·화웨이·텐센트·DJI 본사·R&D, 9,738개 신규 외국기업(중국 1위)	2024 신규 9,738개(21.7%↑), 누적 5만8천 프로젝트·650억 달러, 첨단제조 69.3%↑
코펜하겐	Invest in Denmark·Copenhagen Capacity, EU FDI Act(2021), 녹색·라이프사이언스 클러스터	R&D 투자(GDP 3.1%), 온라인 창업 11분, 글로벌 인재 유치(경쟁력 1위)	AP Møller-Mærsk·Novo Nordisk 본사·R&D, 히타치 빅데이터 연구소, 16개 첨단 병원	2023 FDI 스톡 1,280억 달러, 코펜하겐 수도권 주도, fDi 중형도시 1위(2016/17)
브레멘	Bremeninvest 글로벌 네트워크·산학연 협력, 지속가능·녹색경제 집중	R&D·혁신·인재·임대료 보조금, 원스톱 서비스	Redwood Materials(배터리)·Orient Master(식품)·TK Maxx·SAAB 유치, 510개 기업 테크노로지파크	2023 49개 해외기업·800만 유로, 2024 1,600만 유로↑, 로지스틱스·항공우주 클러스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전략·특별법, 센텀2지구·금융 특구 개발	지방세·입지·고용·R&D 보조금(1인당 200만~2,400만 원), 플라이·위케이션	KSB(해양플랜트)·BMT(전기제어)·DriveForce(선박)·Simple Planet(바이오) 유치	2024.1Q FDI 2억 달러(5배↑), 2021~23 2~4조 원, 2024 6조 원 목표
울산	'산업수도' 비전·특구 신청, 석유화학·이차전지·AI 육성	지방세·입지·설비·R&D·고용 지원	에쓰오일 샤희(9조)·현대차·삼성 SDI 증설·AWS·SK AI 데이터센터(7조)	2022~25 32.7조 원·2만 일자리, 2024 20.7조 원(대폭↑), 2025 5.17조 목표

##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EDB)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산업(전자·반도체, 건설, 수출 등)을 선정하고 클러스터링 전략을 통해 다국적 기업(MNCs)의 아시아 거점화를 추진하며, 다이슨의 글로벌 본사 및 배터리 공장, 페이팔·라쿠텐·트위터 등의 R&D 센터와 생산거점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바이오의약·첨단제조업 클러스터를 조성했음.
- 안정적 법제도와 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R&D 400% 세액공제), 이익 자유 환수 및 영주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2023년 FDI 유입액 1,596억 달러(세계 3위)를 달성하고 2024년 1,920억 달러로 증가시키며, 금융·보험(60.4%)과 제조업 중심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투자를 집중 유치했음.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순위 산업 선정</li> <li>클러스터링 전략</li> <li>경제개발청(EDB) 중심의 투자유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제조업(전자, 반도체), 건설, 수출 등 3대 우선산업 집중</li> <li>1990~2000년대 클러스터 전략(전자, 석유화학, 가공산업 등) 도입, 2010년대 이후 'Host to Home' 전략으로 MNCs의 아시아 거점화 추진</li> <li>EDB는 산업별 전략 수립, 정책 조율, 인센티브 제공, 신산업(바이오의약 등) 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탈(Bio*One Capital 등) 설립 및 R&amp;D 센터 공동 운영 등 적극적 역할 수행</li> </ul>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투명한 법제도</li> <li>간소화된 행정절차</li> <li>공공 인프라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식 법제도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부패 근절, 외국인 소유 제한 및 외환규제 없음</li> <li>기업 설립·운영 신속(일부 사업은 49일 이내 생산 가능)</li> <li>항만·공항·디지털 인프라 등 지속적 확충.</li> <li>정부는 외국기업 국유화 금지, 이익 자유로운 환수 보장 등 투자자 신뢰 확보</li> </ul>
인센티브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제 혜택</li> <li>연구개발 지원</li> <li>이익 환수 및 영주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 감면, R&amp;D 400% 세액공제(Enterprise Innovation Scheme, 2024~2028)</li> <li>IP 등록·이전, 혁신 프로젝트, 교육훈련 등에도 세액공제 및 현금 환급 제공.</li> <li>\$25만 이상 투자 시 영주권 및 시민권 부여, 이익 자유로운 환수, 반복과세 회피협정 체결, 투자자 가족 동반 거주 가능</li> </ul>
성공 사례 및 주요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기업 유치</li> <li>대형 프로젝트 유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이슨(글로벌 본사 및 배터리 공장), 페이팔, 라쿠텐, 카지마, 존슨컨트롤스, 트위터, 줌 등 세계적 기업의 아시아·글로벌 본사, R&amp;D 센터, 생산거점 유치</li> <li>항만, 공항, 디지털지구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li> <li>바이오의약·첨단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등</li> </ul>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투자유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투자유치 선도</li> <li>산업별 투자 유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FDI 유입액 1,596억 달러(세계 3위), 2024년 1,920억 달러로 증가.</li> <li>금융·보험(60.4%), 전문서비스, 도소매, 제조업, 정보통신 등 주력산업 집중.</li> <li>미국(24.7%), 일본, 영국, 중국, 아일랜드 등 주요 투자국</li> </ul>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재 유치 및 육성</li> <li>외국인 근로자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임금·고속권 인력, 외국인 근로자 비중 1/3 이상</li> <li>EDB 주도로 산업별 맞춤형 인재 양성, 단기 기술 수요 파악 및 교육훈련 제공,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li> <li>기술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인력 적극 활용</li> </ul>
국가 브랜드 및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재산권 보호</li> <li>분쟁 해결 및 금융 허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li> <li>국제적 분쟁 해결(중재·조정) 중심지, 금융 허브로서 신뢰도 확보.</li> <li>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제도, 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입지 강화</li> </ul>

## □ 타이베이

- 타이베이는 '스마트 타이완' 전략과 '5+2' 산업혁신계획(스마트기계, 생물약, 녹색에너지 등)을 통해 ICT 기반 하이테크 산업 육성 및 신남방정책으로 남아시아·동남아 18개국 협력을 강화하며, 애플(Apple, 대만 최초 유니콘), 고고로(Gogoro, 전기스쿠터), 저스트 키친(Just Kitchen, 클라우드 키친) 등의 글로벌 스타트업과 TSMC·ASUS·Acer 등 반도체·ICT 대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했음.
- 투명한 법제도와 지적재산권 보호, InvesTaiwan의 원스톱 서비스, R&D 투자 25% 및 설비 5% 법인세 감면(칩스법) 등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2024년 FDI 2,221건(78억 달러)을 달성하고 2025년 1월 1.11억 달러(전년 동월 대비 88.94% 증가)로 급증시키며, 신재생에너지·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싱가포르·호주 등 신남방정책 국가 투자를 집중 유치했음.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타이완(Smart Taiwan) 전략</li> <li>'5+2' 산업혁신계획</li> <li>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구축</li> <li>신남방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만 정부는 차이잉원 전 대통령 시기부터 '스마트 타이완'을 내세워 ICT 기반 하이테크 산업 구조개편과 혁신을 추진.</li> <li>'5+2' 산업(스마트기계, 생물약, 녹색에너지 등) 육성, 신남방정책(남아시아·동남아 18개국과 협력)으로 시장 다변화.</li> <li>타이베이는 '타이베이 기업가 허브(TEH)' 등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 해외 스타트업 유치와 성장 지원.</li> </ul>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하고 안정된 법제도</li> <li>간소화된 행정절차</li> <li>지적재산권 보호</li> <li>원스톱 서비스(InvesTaiwa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만 헌법과 상법·세법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 외국인 투자자 보호 및 법적 안정성 제공.</li> <li>지적재산권 보호는 국제 기준 준수, 특허·상표 신속 처리.</li> <li>경제부 산하 'InvesTaiwan 서비스센터'에서 투자 정보, 사업 평가, 파트너 매칭, 허가 취득 등 원스톱 지원</li> </ul>
인센티브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제 혜택(칩스법 등)</li> <li>혁신 및 R&amp;D 보조금</li> <li>엔젤투자·창업지원</li> <li>시 차원 R&amp;D 보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amp;D 투자액 25%, 설비 투자액 5%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칩스법' 등 세제 혜택.</li> <li>중소기업 혁신연구보조금(SBIR), 서비스산업혁신연구(SIIR), 국가개발기금 창업엔젤투자 등 다양한 R&amp;D·창업 지원.</li> <li>타이베이는 최대 500만 대만달러(약 15억 원) R&amp;D 보조금 제공</li> </ul>
성공 사례 및 주요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스타트업 유치</li> <li>대형 에너지·바이오 프로젝트</li> <li>반도체·CT 기업 집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애플어(Appier, 대만 최초 유니콘), 고고로(Gogoro, 전기 스쿠터), 저스트 키친(Just Kitchen, 클라우드 키친), 91업 등 글로벌 스타트업 성장.</li> <li>코펜하겐 인프라 파트너스(CIP) 등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평마요 프로젝트) 유치.</li> <li>TSMC, ASUS, Acer 등 반도체·CT 대기업 집적</li> </ul>
투자유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I 규모 및 증가</li> <li>산업별 투자 유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FDI(중국 제외) 22억 2,221건(78억 달러), 단일 월 기준 2025년 1월 FDI(중국 제외) 1.1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8.94% 증가.</li> <li>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li> <li>신남방정책 국가(싱가포르, 호주 등) 투자도 지속</li> </ul>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인재 유치(골드카드, 기업가 비자)</li> <li>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 골드카드' 등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 기업가 비자로 해외 스타트업 창업자 유치.</li> <li>'Startup Island TAIWAN', '타이베이 기업가 허브(TEH)' 등에서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지원</li> </ul>
국가 브랜드 및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재산권 보호</li> <li>금융 안정성</li> <li>글로벌 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적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안정된 환율과 저금리, 풍부한 자본, 금융 비용 저렴.</li> <li>외국인 투자자 보호, 글로벌 협력(신남방정책, 미국·일본 등과의 산업협력) 강화</li> </ul>

## □ 요코하마

- 요코하마는 2004년 '기업 입지 유치 조례' 도입과 미나토 미라이 21(M21) 대형 도시재생 프로젝트(186헥타르 규모)를 통해 첨단 오피스·연구시설·비즈니스 허브를 개발하며, 'Innovation City Yokohama' 선언(2019년)으로 스타트업·벤처 육성과 오픈 이노베이션(대기업-스타트업 협업)을 강화해 닛산 글로벌 본사, 후지제록스·시세이도·교세라·무라타제조·소니·LG전자 등의 R&D 센터와 본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YOYO BOX·Tech Hub Yokohama 등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했음.

- 투명한 법제도와 JETRO 협력 원스톱 지원, 대규모 본사R&D 설립 시 최대 50억 엔 보조금·임대료 지원, 스타트업 비자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2021/2022년 fDi Intelligence '글로벌 도시의 미래' 대형도시 FDI 전략 3위(2차 도시 5위)를 달성하고 미나토 미라이 21에 1,800개 이상 기업·11만 명 근무·20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을 집적하며, 첨단제조·ICT·바이오 성장산업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했음.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입지 유치 조례(2004년)</li> <li>미나토 미라이 21 프로젝트</li> <li>스타트업·벤처 활성화</li> <li>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년 '기업 입지 유치 조례' 도입, 일본 내 지자체 중 가장 포괄적인 기업 지원 정책 패키지 제공.</li> <li>미나토 미라이 21(M21)은 186헥타르 규모의 대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첨단 오피스와 연구시설,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되어 글로벌 기업 본사R&amp;D 센터 집적.</li> <li>스타트업·벤처 육성 및 오픈 이노베이션(대기업-스타트업 협업) 강화, 'Innovation City Yokohama' 선언(2019년)으로 혁신도시 이미지 강화</li> </ul>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li> <li>간소화된 행정 및 원스톱 지원</li> <li>첨단 인프라 구축</li> <li>생활 및 환경 친화적 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요코하마시와 카나가와현,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가 협력해 외국기업 진출에 원스톱 지원 제공.</li> <li>첨단 오피스, 연구시설, 문화·커뮤니티 공간 등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훌륭한 교통망(도쿄와 30분 거리), 해변, 공원 등 생활 환경 우수.</li> <li>친환경·지속가능 도시 조성에 공공-민간 협력(Y-PORT 프로젝트 등) 활발</li> </ul>
인센티브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제 및 보조금 지원</li> <li>임대료·입지 보조금</li> <li>스타트업 비자 및 인큐베이션 지원</li> <li>성장산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본사R&amp;D 센터 설립 시 최대 50억 엔(구축·매입), 임대 시 최대 5억 엔 보조금.</li> <li>외국기업 대상 임대료 보조금 최대 5억 엔, 성장산업 입지 보조금 최대 250만 엔.</li> <li>스타트업 비자 제공, JETRO 및 카나가와산업진흥센터(KIP)를 통한 인큐베이션 및 임대오피스 지원(최대 50일 무료).</li> <li>성장산업(첨단제조, ICT, 바이오 등) 집중 지원</li> </ul>
성공 사례 및 주요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기업 본사R&amp;D 센터 유치</li> <li>스타트업 허브 및 오픈 이노베이션</li> <li>산학연 협력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닛산 글로벌 본사, 후지제록스, 시세이도, 교세라, 무라타 제조, 소니,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 본사R&amp;D 센터 집적.</li> <li>YOXO BOX, Tech Hub Yokohama 등 스타트업 허브 및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 운영.</li> <li>요코하마시립대, 카나가와대 등 대학 캠퍼스 이전 및 산학연 협력 강화</li> </ul>
투자유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FDI 전략 도시 선정</li> <li>글로벌 기업 집적</li> <li>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2022년 fDi Intelligence '글로벌 도시의 미래' 대형 도시 부문 FDI 전략 3위 선정, 2차 도시 부문 5위 선정.</li> <li>미나토 미라이 21에 1,800개 이상 기업, 11만 명 이상 근무, 200개 이상 글로벌 기업 본사 집적.</li> <li>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로 일본 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li> </ul>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오피스 운영</li> <li>• 국제 인재 유치</li> <li>• 글로벌 파트너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이(중국), 프랑크푸르트(독일), 뉴욕(미국), 방콕(태국) 등 해외 오피스 운영.</li> <li>• 외국인 인재 유치, 글로벌 파트너십(예: Venture Café, The Drivery 등)과 협력 통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li> </ul>
국가 브랜드 및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 보호</li> <li>• 금융·투자 환경 우수</li> <li>• 글로벌 혁신도시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시장 개방, 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 요코하마는 일본 내외에서 혁신도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신뢰도 높음.</li> <li>• 환경·지속가능성, 생활의 질,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에 강점</li> </ul>

## □ 함부르크

- 함부르크는 장기적 도시개발 전략(HafenCity, Science City Bahrenfeld 등)을 통해 첨단산업·스타트업·미래산업 유치에 집중하고 Hamburg Invest를 통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강화하며, Gamecity Hamburg(게임산업 클러스터), Media & Digital City Hamburg(미디어·디지털 클러스터) 등의 클러스터를 조성해 ContiTech InnovationLab, Garz & Fricke 등 200개 이상 첨단기업과 함부르크공과대학(TUHH) 출신 창업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했음.
- 투명한 법제도와 Hamburg Invest의 원스톱 서비스, 연방·주시 차원의 맞춤형 보조금·R&D 지원, 스타트업 창업 자금(최소 500만~1000만 유로)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2019년 1,100개사 지원으로 6억5,600만 유로 투자유치 및 11,530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스타트업 투자액 2억9,600만 유로(독일 도시 2위)로 첨단제조·ICT·바이오 등 혁신기업 집적과 Harburg 테크노파크 개발을 통해 유럽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했음.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도시개발 전략</li> <li>• 스타트업 및 첨단산업 집중 지원</li> <li>•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강화</li> <li>• Hamburg Invest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부르크는 글로벌 항구도시로서 장기적 도시개발(예: HafenCity, Science City Bahrenfeld 등) 전략을 통해 첨단산업, 스타트업, 미래산업 유치에 집중.</li> <li>• Hamburg Invest는 도시 내 투자유치, 산업입지,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씀.</li> <li>• 스타트업·벤처 활성화, 첨단제조, 미디어, 게임, 금융 등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됨.</li> </ul>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li> <li>간소화된 행정 및 원스톱 지원</li> <li>첨단 인프라 및 산업단지 개발</li> <li>생활 및 환경 친화적 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부르크는 독일 내에서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이익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li> <li>Hamburg Invest 등에서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입지 선정, 계약, 행정 지원 등) 제공.</li> <li>HafenCity(유럽 최대 도시재생 프로젝트), Science City Bahrenfeld, Harburg 테크노파크 등 첨단 인프라와 산업 단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됨.</li> <li>항만, 공항, 대중교통 등 접근성 우수,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li> </ul>
인센티브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주시 차원의 다양한 보조금 및 금융지원</li> <li>R&amp;D 및 혁신 지원</li> <li>스타트업 창업 및 확장 지원</li> <li>근로자 교육 및 고용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 함부르크주, 시 차원에서 신규 투자, 확장, 혁신, R&amp;D, 환경,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보조금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li> <li>IFB Hamburg 등 금융기관과 연계해 유동성·운전자금 대출, 연구개발·혁신 보조금,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등 제공.</li> <li>스타트업 창업 및 확장을 위한 자금(최소 500만~1000만 유로 등) 지원, 청년창업 활성화</li> </ul>
성공 사례 및 주요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스타트업 및 첨단기업 유치</li> <li>산학연 협력 활성화</li> <li>미디어·게임·핀테크 산업 클러스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amecity Hamburg(게임산업 클러스터), Media &amp; Digital City Hamburg(미디어·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li> <li>Harburg 테크노파크에는 200개 이상의 첨단기업 (ContiTech InnovationLab, Garz &amp; Fricke 등) 집적, 함부르크공과대학(TUHH) 출신 창업자 다수.</li> <li>스타트업 약 440개(금융, 핀테크, 게임, 미디어 등), 연간 설립 수 증가</li> </ul>
투자유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I 및 일자리 창출 우수</li> <li>스타트업 투자액 독일 내 2위</li> <li>혁신기업 및 스타트업 집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 기준 1,100개사 지원, 6억5,600만 유로 투자유치, 11,530개 일자리 창출 및 유지.</li> <li>스타트업 투자액 2억9,600만 유로로 독일 도시 중 2위 (2015년 기준).</li> <li>Harburg 등 지역에 200개 이상 첨단기업 입지, 첨단제조, ICT, 바이오 등 혁신기업 집적</li> </ul>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li> <li>산학연 협력 강화</li> <li>스타트업 허브 및 인큐베이션 공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부르크공과대학(TUHH), DESY(입자물리연구소) 등과 산학연 협력, 기술이전 및 인재양성 활발.</li> <li>스타트업 허브(tecHHub Altona, DESY Innovation Factory 등) 운영, 글로벌 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li> </ul>
국가 브랜드 및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재산권 보호</li> <li>금융·투자 환경 우수</li> <li>글로벌 혁신도시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시장 개방, 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함부르크는 유럽 내 혁신도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신뢰도 높음.</li> <li>환경·지속가능성, 생활의 질,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에 강점</li> </ul>

## □ 상하이

- 상하이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2013년 출범·2015·2019년 확장)와 ‘마이너스 리스트’ 관리, ‘2025 외국인투자 안정화 행동계획’을 통해 첨단기술·서비스·지속가능 산업 유치를 강화하고 산업맵(2018년 발표·2023년 개정)으로 체계적 투자 프로모션을 추진하며, 테슬라(링강 특구 기가팩토리), 모더나(바이오의약), 다나허(라이카 마이크로시스템스·사이티바), 알렌앤글레드힐(싱가포르 대형 로펌)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R&D 센터와 루자주이 금융센터에 122개 외국계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을 성공적으로 집적해 첨단산업·바이오·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했음.
- 국제적 법제도와 FTZ 내 ‘싱글 윈도우’ 행정·원스톱 지원, 법인세·토지 사용료 감면·R&D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 FT계좌 도입(2014년)으로 자금 자유화 및 외국인 인재 비자 신속 처리 등을 활용해 2023년 실제 외국인투자 240억 달러(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2024년 1분기 78억 달러(고기술 산업 45.9% 증가)로 확대되며, 907개 글로벌 본사·538개 R&D 센터·7만 개 외국계 기업 입주로 상하이 GDP 25%·세수 1/3·수출입 2/3를 기여하는 글로벌 투자 허브 위상을 강화했음.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및 신청책 도입</li> <li>• '마이너스 리스트' 관리방식</li> <li>• '2025 외국인투자 안정화 행동계획'</li> <li>• 산업맵 및 투자 프로모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이 FTZ(2013년 출범, 2015·2019년 확장)는 중국 개방정책의 핵심 실험장으로, 외국인 투자제한을 '마이너스 리스트'로 관리하며, 이는 2017년 전국으로 확대. 2025년 '외국인투자 안정화 행동계획'은 첨단기술, 서비스, 지속가능한 산업 등 핵심 분야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는 국가 전략이자, 상하이시가 주도적으로 실행.</li> <li>• 상하이시 산업맵(국내 최초, 2018년 발표, 2023년 개정)은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li> </ul>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하고 국제적 법제도</li> <li>• 간소화된 행정 및 원스톱 지원</li> <li>• 첨단 인프라 및 산업단지 개발</li> <li>• 생활 및 환경 친화적 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이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춘 투명한 법제도와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 FTZ 내 '싱글 윈도우' 행정,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허가 신속 처리.</li> <li>• 푸둥신구, 루자주이 금융센터, 링강 특구 등 첨단 인프라 및 산업단지 개발.</li> <li>• 세계 최대 항만, 국제공항, 고속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 우수한 교육·의료·문화 환경 제공.</li> </ul>
인센티브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제·토지 등 우대정책</li> <li>•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li> <li>• 외국인전용 금융계좌(FT계좌)</li> <li>• 외국인 인재 유치 및 비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 및 토지 사용료 감면, R&amp;D 투자액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li> <li>• FT계좌 도입(2014년)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 이동, 환전, 해외결제 등 금융거래 자유화 및 편의성 극대화.</li> <li>•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및 거주 허가 신속 처리,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가족 동반 거주 지원.</li> </ul>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성공 사례 및 주요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본사R&amp;D 센터 집적</li> <li>첨단산업 및 바이오 프로젝트</li> <li>스타트업 및 금융기관 집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슬라(링강 특구 내 기가팩토리), 모더나(바이오의약), 다나허(라이카 마이크로시스템스, 사이티바), 알렌앤글레드힐(싱가포르 대형 로펌) 등 글로벌 기업 본사R&amp;D 센터 집적.</li> <li>루자주이 금융센터에 122개 외국계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입주.</li> <li>상하이시는 연간 850개 이상의 협력계약 체결, 1.8조 위안(약 2,500억 달러) 투자 유치</li> </ul>
투자유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I 및 일자리 창출 우수</li> <li>글로벌 기업 본사R&amp;D 센터 집적</li> <li>고기술 산업 투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실제 외국인투자 24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li> <li>2024년 1분기 외국인투자 78억 달러, 고기술 산업 투자 45.9% 증가.</li> <li>907개 글로벌 기업 본사, 538개 R&amp;D 센터, 7만 개 외국계 기업 입주.</li> <li>외국계 기업이 상하이시 GDP의 25%, 세수의 1/3, 수출입의 2/3 기여</li> </ul>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li> <li>산학연 협력 강화</li> <li>스타트업 허브 및 인큐베이션 공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하이시는 푸단대, 상하이교통대 등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산학연 협력 활성화.</li> <li>스타트업 허브 및 인큐베이션 공간 운영, 글로벌 투자유치 컨퍼런스(2020년 이후 매년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li> </ul>
국가 브랜드 및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재산권 보호</li> <li>금융·투자 환경 우수</li> <li>글로벌 혁신도시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하이시는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시장 개방, 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상하이 증권거래소, 세계 최대 항만,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신뢰도 높음.</li> <li>환경·지속가능성, 생활의 질,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에 강점.</li> </ul>

## □ 홍콩

- 홍콩은 Invest Hong Kong(InvestHK)를 통해 스타트업·혁신 산업 지원(2017~2021년 1,500억 홍콩달러 투입)과 신자본투자자이민제도(New CIES, 2024년 3월 도입으로 최소 3,000만 홍콩달러 투자 시 영주권 부여)를 강화하며, Top Talent Pass Scheme 등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해 KLOOK(아시아 주요 도시 진출 유니콘), WeLab·Lalamove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국·유럽·중국·싱가포르 글로벌 기업의 본사·R&D 센터를 성공적으로 집적하며 금융·혁신·관광·프로페셔널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했음.
- 영국식 법제도 기반 투명성, 낮은 세율(법인세 최대 16.5%, 개인소득세 최대 17%, 부가가치세·상속세 없음)과 R&D 세액공제·스타트업 펀드(300억 홍콩달러 신규 펀드) 등의 인센티브, CEPA(홍콩-중국 경제협력협약)로 중국 본토 시장 진

입 용이성을 활용해 2023년 FDI 유입액 1,126억 달러(세계 4위)를 달성하고 2024년 InvestHK 지원 539개 기업(41% 증가)으로 677억 홍콩달러(약 87억 달러) 투자 및 6,864개 일자리 창출을 기록하며 혁신·기술·금융서비스·핀테크 중심 글로벌 투자 허브 위상을 강화했음.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vest Hong Kong(InvestHK) 운영</li> <li>신자본투자자이민제도(New CIES) 도입 및 강화</li> <li>스타트업·혁신 산업 집중 지원</li> <li>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vestHK는 홍콩정부 산하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2024년 539개 해외 및 중국 본토 기업의 진출 확장을 지원하며 기록적 성과 달성.</li> <li>New CIES(신자본투자자이민제도)는 2024년 3월 도입되어 최소 3,000만 홍콩달러(약 50억 원) 투자로 영주권 취득 기회 제공, 2024년 말까지 800건 이상 신청.</li> <li>스타트업·혁신산업 지원을 위해 2017~2021년 1,500억 홍콩달러(약 191억 달러) 투입, 스타트업 수 2,229개에서 3,755개로 증가.</li> <li>Top Talent Pass Scheme 등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 도입</li> </ul>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li> <li>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 개선</li> <li>자유로운 자본 이동 및 외환 규제 없음</li> <li>첨단 인프라 및 생활 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콩은 영국식 법제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외환 규제 없으며, 법인세(최대 16.5%), 개인소득세(최대 17%) 등 낮은 세율, 부가가치세·상속세 등도 없음.</li> <li>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공항,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교육·의료·문화 환경 제공.</li> <li>CEPA(홍콩-중국 경제협력협약)로 중국 본토 시장 진입 용이</li> </ul>
인센티브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li> <li>스타트업·혁신 지원 펀드</li> <li>영주권 및 가족 동반 거주</li> <li>고용·교육 보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개인소득세 감면, R&amp;D 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li> <li>스타트업·혁신 지원을 위한 대규모 펀드(예: 300억 홍콩 달러 신규 펀드) 조성.</li> <li>New CIES로 투자자 및 가족 영주권, 교육·의료 혜택, 저렴한 세율 제공.</li> <li>청년 고용 보조금(월 1만 2천 홍콩달러, 최대 18개월), 대만구(GBA) 청년 고용 계획 등 인재 유치 및 교육 지원</li> </ul>
성공 사례 및 주요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기업 본사R&amp;D 센터 집적</li> <li>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 성장</li> <li>금융·혁신·관광·프로페셔널 서비스 산업 집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기업 본사R&amp;D 센터 집적(예: KLOOK, WeLab, Lalamove 등 유니콘 기업).</li> <li>KLOOK은 홍콩 사이버포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후원으로 성장, 아시아 주요 도시 진출 및 유니콘 등극.</li> <li>금융, 혁신·기술, 관광, 프로페셔널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투자 집중</li> </ul>
투자유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I 유입액 및 기업 수 기록적 증가</li> <li>글로벌 투자 허브로서 위상 강화</li> <li>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FDI 유입액 1,126억 달러(세계 4위), 2024년 InvestHK 지원 기업 539개(41% 증가), 투자액 677억 홍콩달러(약 87억 달러), 일자리 6,864개 창출.</li> <li>FDI 스톡 2.1조 달러로 세계적 금융·비즈니스 허브 위상 확립.</li> <li>투자 주력 분야는 혁신·기술, 금융서비스·핀테크, 패밀리 오피스, 관광·호스피탈리티, 비즈니스·프로페셔널 서비스</li> </ul>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li> <li>• 산학연 협력 강화</li> <li>• 스타트업 허브 및 인큐베이션 공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p Talent Pass Scheme(세계 100대 대학 졸업생 2년 비자), 부동산 인지세 반환 등 인재 유치 정책.</li> <li>•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산학연 협력 활성화.</li> <li>• 사이버포트, 홍콩과학기술파크 등 스타트업 허브 및 인큐베이션 공간 운영</li> </ul>
국가 브랜드 및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 보호</li> <li>• 금융·투자 환경 우수</li> <li>• 글로벌 혁신도시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시장 개방, 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 홍콩은 세계 7위 무역주체, 6위 증권거래소 보유, 중국 본토 진출 교두보.</li> <li>• 환경·지속가능성, 생활의 질,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에 강점</li> </ul>

## □ 선전

- 선전은 1980년대 특별경제구(SEZ) 지정으로 인력·가격·외국인 합작·인프라 규제 완화와 세제·입지 우대를 통해 홍콩과의 지리적·문화적 연계를 강화하고, '2025 상업·투자유치 지원정책'으로 신규 투자 5천만 달러 이상 기업에 1~3% 보상(최대 5천만 위안) 및 다국적 본사 유치 시 현금 보상을 제공하며, 테슬라·BYD·화웨이·텐센트·DJI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R&D 센터를 성공적으로 집적해 금융·첨단제조·ICT·로봇·3D프린팅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선전증권거래소(SZSE)·GEM을 통한 상장 활성화를 이끌었음.
- 투명한 법제도와 '네거티브 리스트' 기반 외국인 투자법, 투자유치국 중심 원스톱 서비스, 법인세 감면·R&D 세액공제·혁신기업 지원 펀드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2024년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9,738개를 달성하고 2023~2024년 5천만 달러 이상 투자 기업 다수 유치로 누적 5만 8천 프로젝트·650억 달러 실제 이용 외국인투자를 기록하며, 상반기 첨단제조 투자 69.3% 증가와 전자부품·서비스로봇·3D프린팅 생산 급증으로 글로벌 투자 허브 위상을 강화했음.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경제구(SEZ) 지정 및 정책 혁신</li> <li>• '2025 상업·투자유치 지원정책' 등 최신 인센티브</li> <li>• 글로벌 본사R&amp;D 유치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선전 특별경제구(SEZ) 지정으로 인력, 가격, 외국인 합작, 인프라 입찰 등 규제 완화 및 세제·입지 우대 제공, 홍콩과의 지리적·문화적 연계 강화.</li> <li>• 2025년 '상업·투자유치 지원정책' 등 최신 정책으로 2023~2024년 신규 투자 5천만 달러 이상 기업에 투자액의 1~3% 보상(최대 5천만 위안),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 시 2년간 연 1천만 달러 이상 투자에 500만 위안 일시 보상.</li> </ul>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투자법 및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투자법 및 '네거티브 리스트' 기반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li> </ul>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하고 국제적 법제도</li> <li>간소화된 행정 및 원스톱 지원</li> <li>첨단 인프라 및 산업단지 개발</li> <li>생활 및 환경 친화적 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투자자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이익 자유로운 이동, 외국인과 내국인 동등 대우.</li> <li>행정절차 간소화, 투자유치국(Investment Promotion Bureau)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li> <li>첨단 오피스, 연구시설, 금융센터, 첨단제조 클러스터, 세계적인 항만·공항 인프라, 우수한 교육·의료·문화 환경</li> </ul>
인센티브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제·금융 인센티브</li> <li>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li> <li>외국인 인재 유치 및 비자 지원</li> <li>글로벌본사R&amp;D 센터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액에 따른 현금 보상, 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등), R&amp;D 투자 세액공제, 혁신기업 지원 펀드 확대.</li> <li>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및 거주 허가 신속 처리, 가족 동반 거주 지원.</li> <li>다국적기업 본사R&amp;D 센터 유치 시 현금 보상 및 입지 우대</li> </ul>
성공 사례 및 주요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본사R&amp;D 센터 집적</li> <li>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 성장</li> <li>금융·첨단제조·CT 산업 집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슬라, BYD, 화웨이, 텐센트, DJI 등 글로벌 기업 본사 R&amp;D 센터 집적.</li> <li>2024년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9,738개(전년 대비 21.7% 증가, 중국 내 1위).</li> <li>스타트업·유니콘 기업 다수, 선전증권거래소(SZSE) 및 GEM(성장기업시장) 통해 상장 활발.</li> <li>금융, 첨단제조, ICT, 로봇, 3D프린팅 등 산업 강점</li> </ul>
투자유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I 및 일자리 창출 우수</li> <li>글로벌 투자 허브로서 위상 강화</li> <li>고기술 산업 투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9,738개(중국 내 1위), 2023~2024년 신규 투자 5천만 달러 이상 기업 다수.</li> <li>2014년까지 누적 5만 8천개 프로젝트, 실제 이용 외국인 투자 650억 달러.</li> <li>2024년 상반기 첨단제조 투자 69.3% 증가, 3D프린팅·서비스로봇·전자부품 생산 급증</li> </ul>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li> <li>산학연 협력 강화</li> <li>스타트업 허브 및 인큐베이션 공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및 해외에서 유입된 젊은 인재로 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 최고 수준 '엔진룸' 인구 비율.</li> <li>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산학연 협력 활성화.</li> <li>스타트업 허브, 인큐베이션 공간, 글로벌 투자유치 컨퍼런스 등 네트워크 구축</li> </ul>
국가 브랜드 및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재산권 보호</li> <li>금융·투자 환경 우수</li> <li>글로벌 혁신도시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적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시장 개방, 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선전증권거래소, 세계적 금융·비즈니스 허브로서 신뢰도 높음.</li> <li>환경·지속가능성, 생활의 질,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에 강점</li> </ul>

## □ 코펜하겐(덴마크)

- 코펜하겐은 덴마크 전국 투자유치 전략(Invest in Denmark)과 코펜하겐 전략(Copenhagen Capacity)을 통해 지역별 프로젝트 매니저와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조직을 강화하며 EU FDI Act(2021년 도입)로 투명한 심사 체계를 구

축하고 녹색·혁신 산업 육성을 집중해 AP Møller-Mærsk, Novo Nordisk, Carlsberg, Novozymes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R&D 센터와 히타치의 빅데이터 연구소, 16개 첨단 병원 등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녹색·라이프사이언스·스마트시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유럽 중형도시 FDI 전략 1위(2016/17, fDi Intelligence)를 달성했음.

- 투명한 법제도와 온라인 창업(최단 11분)·원스톱 지원, R&D 투자(GDP 3.1% 이상, OECD 최상위권) 및 글로벌 인재 유치(경쟁력 1위, 2017 INSEAD)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2023년 덴마크 FDI 스톡 8,870억 DKK(약 1,280억 달러)를 기록하고 코펜하겐 수도권이 전국 FDI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코펜하겐대학·DTU·CBS 등 산학연 협력과 스타트업 허브 운영으로 연구개발 투자 비중 확대와 녹색·라이프사이언스·스마트시티 등 첨단산업 투자를 증가시켜 유럽 비즈니스 친화성 1위로서의 글로벌 혁신도시 위상을 강화했음.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투자유치 전략 및 코펜하겐 전략(Copenhagen Capacity)</li> <li>지역별 프로젝트 매니저 및 산학연 협력</li> <li>EU 및 국가 투자심사(FDI Act) 적용</li> <li>녹색·혁신산업 집중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덴마크 전국 투자유치 전략(Invest in Denmark)과 코펜하겐 전략(Copenhagen Capacity)은 지역별 프로젝트 매니저,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조직, 지자체, 대학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투자유치 및 성장 기회를 창출.</li> <li>코펜하겐 캐퍼시티는 브랜딩, 마케팅, 글로벌 인재 유치, 디지털 캠페인, 국제 컨퍼런스 참가로 글로벌 위상 강화.</li> <li>2021년 도입된 덴마크 FDI Act(외국인투자심사법)은 EU 규정에 맞춰 투명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며, 2023년 기준 약 30일 내외로 투자심사 처리</li> </ul>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li> <li>간소화된 행정 및 원스톱 지원</li> <li>첨단 인프라 및 산업단지 개발</li> <li>생활 및 환경 친화적 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덴마크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이익 자유로운 이동,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제공.</li> <li>코펜하겐은 온라인 창업(최단 11분), 디지털 행정,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로 유명.</li> <li>첨단 오피스, 연구시설, 금융센터, 첨단제조 클러스터, 세계적 항만·공항 인프라, 우수한 교육·의료·문화 환경.</li> <li>도시는 1947년 핑거플랜(Finger Plan) 기반으로 집적,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 구</li> </ul>
인센티브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금융 인센티브(제한적)</li> <li>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li> <li>인재 유치 및 비자 지원</li> <li>글로벌 본사R&amp;D 센터 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덴마크는 세계·금융 인센티브(특별한 특혜는 없음) 대신, 연구개발(R&amp;D) 투자(국가 GDP의 3.1% 이상, OECD 최상위권), 혁신기업 지원, 인재 유치(글로벌 인재 경쟁력 1위), 비자 및 거주 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투자 유치.</li> <li>코펜하겐은 인재 풀, 글로벌 네트워크, 높은 삶의 질, 사회적 안정성 등으로 차별화</li> </ul>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성공 사례 및 주요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본사R&amp;D 센터 집적</li> <li>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성장</li> <li>녹색·라이프사이언스·스마트시티 산업 집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 Møller-Mærsk, Novo Nordisk, Carlsberg, Novozymes 등 글로벌 기업 본사R&amp;D 센터 집적.</li> <li>히타치(Hitachi) 등 글로벌 기업의 빅데이터 연구소, 디지털 헬스테크 솔루션 개발.</li> <li>16개 첨단 병원, 녹색·라이프사이언스·스마트시티 클러스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li> <li>코펜하겐은 유럽 내 FDI 전략 부문 1위(2016/17, fDi Intelligence)</li> </ul>
투자유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I 및 일자리 창출 우수</li> <li>글로벌 투자 허브로서 위상 강화</li> <li>고기술 산업 투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덴마크 FDI 스톡 8,870억 DKK(약 1,280억 달러), 코펜하겐 수도권은 전국 FDI의 상당 부분 차지.</li> <li>2016/17년 유럽 중형도시 중 FDI 전략 1위, 글로벌 인재 경쟁력 1위.</li> <li>연구개발(R&amp;D) 투자 비중(3.1% 이상), 녹색·라이프사이언스·스마트시티 등 첨단산업 투자 증가</li> </ul>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li> <li>산학연 협력 강화</li> <li>스타트업 허브 및 인큐베이션 공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펜하겐은 코펜하겐대학, IT대학, DTU(덴마크공과대학),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등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산학연 협력 활성화.</li> <li>스타트업 허브, 인큐베이션 공간, 글로벌 투자유치 컨퍼런스 등 네트워크 구축.</li> <li>글로벌 인재 경쟁력 1위(2017, INSEAD)</li> </ul>
국가 브랜드 및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재산권 보호</li> <li>금융·투자 환경 우수</li> <li>글로벌 혁신도시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덴마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시장 개방, 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코펜하겐은 유럽 내 비즈니스 친화성 1위, 글로벌 혁신도시, 녹색수도로써 신뢰도 높음.</li> <li>환경·지속가능성, 삶의 질, 사회적 안정성,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에 강점</li> </ul>

## □ 브레멘(독일)

- 브레멘은 Bremeninvest(WFB Wirtschaftsförderung Bremen GmbH)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중국·터키·베트남·영국·미국 해외 오피스)와 산학연 협력(브레멘공과대학·첨단기술파크·ECOMAT 클러스터)을 강화하며 지속가능·녹색경제 분야를 집중 지원해 Redwood Materials(미국, 배터리 리사이클링), Orient Master(중국, 식품 유통), TK Maxx(영국, 리테일), SAAB Group(스웨덴, IT·해양) 등의 글로벌 기업과 OHB SE·BEGO Group·OAS AG 등 첨단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브레멘테크놀로지파크에 510개 이상 기업·15,500명 이상 근무자를 집적해 로지스틱스·첨단제조·식품·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했음.

- 투명한 법제도와 Bremeninvest의 원스톱 서비스, R&D·혁신 지원·인재 유치·임대료·입지 보조금 등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활용해 2023년 49개 해외기업 진출 및 약 800만 유로 투자(2024년 1,600만 유로 이상 확대)를 달성하고 유럽 최고 수준 항만·공항 인프라(3백만㎡ 창고공간)로 첨단제조·로지스틱스·항공우주·식품 등 고기술 산업 투자를 집중 유치하며 녹색 도시(인당 60㎡ 녹지)로서의 글로벌 혁신 허브 위상을 강화했음.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emeninvest(브레멘인베스트) 경제개발청 주도</li> <li>• 글로벌 네트워크 및 마케팅</li> <li>• 산학연 협력 및 혁신 지원</li> <li>• 지속가능·녹색경제 집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멘인베스트(WFB Wirtschaftsförderung Bremen GmbH)는 브레멘시의 경제개발청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지 진출, 투자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li> <li>• 중국, 터키, 베트남, 영국, 미국 등 해외 오피스 운영 및 직접적인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li> <li>• 브레멘공과대학, 첨단기술파크(Technology Park), ECOMAT 등 산학연 협력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li> <li>•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등 녹색경제 분야 집중 지원</li> </ul>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li> <li>• 간소화된 행정 및 원스톱 지원</li> <li>• 첨단 인프라 및 산업단지 개발</li> <li>• 생활 및 환경 친화적 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멘은 독일 내에서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 지적 재산권 보호, 자본·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 브레멘인베스트가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입지 선정, 계약, 행정 지원 등) 제공.</li> <li>• 첨단 오피스, 연구시설, 금융센터, 첨단제조 클러스터, 세계적 항만·공항 인프라, 우수한 교육·의료·문화 환경.</li> <li>• 브레멘은 독일에서 가장 녹색 도시(인당 60㎡ 녹지), 친환경적 도시 조성, 높은 삶의 질, 사회적 안정성 제공</li> </ul>
인센티브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제·금융 인센티브</li> <li>•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li> <li>• 인재 유치 및 비자 지원</li> <li>• 임대료·입지 보조금 등 맞춤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멘은 독일 내에서 세제·금융 인센티브(특별한 특혜는 없음) 대신, 연구개발(R&amp;D) 투자, 혁신기업 지원, 인재 유치, 비자 및 거주 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투자 유치.</li> <li>• 브레멘인베스트는 맞춤형 임대료·입지 보조금, 창업 및 성장 펀드, 벤처캐피탈, 비즈니스 보증 등 다양한 지원 제공</li> </ul>
성공 사례 및 주요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본사R&amp;D 센터 집적</li> <li>•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성장</li> <li>• 로지스틱스·첨단제조·식품·항공우주 산업 집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dwood Materials(미국, 배터리 리사이클링, Bremerhaven), Orient Master(중국, 식품유통), TK Maxx(영국, 리테일), HiFi Klubben(덴마크, 전자), Urban Outfitters(미국, 패션), SAAB Group(스웨덴, IT·해양), Arkhetech(터키, 소프트웨어), Prominall(터키, 식품) 등 글로벌 기업 및 스타트업 집적.</li> <li>• 브레멘테크놀로지파크(Technology Park)에는 510개 이상의 첨단기업 및 연구소, 15,500명 이상 근무, OHB SE, BEGO Group, OAS AG 등 글로벌 기업 입주</li> </ul>
투자유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DI 및 일자리 창출 우수</li> <li>• 글로벌 투자 허브로서 위상 강화</li> <li>• 고기술 산업 투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49개 해외기업 진출, 약 800만 유로 투자(2024년 일부 신규기업 기준 1,600만 유로 이상 투자).</li> <li>• 브레멘은 유럽 내 최고 수준의 항만·공항 인프라, 3백만㎡ 이상의 창고공간, 첨단제조·로지스틱스·항공우주·식품산업 등에서 투자 집중.</li> <li>• 첨단기술, 지속가능, 녹색산업 등 고기술 산업 투자 증가</li> </ul>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li> <li>• 산학연 협력 강화</li> <li>• 스타트업 허브 및 인큐베이션 공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멘공과대학, 첨단기술파크(Technology Park), ECOMAT 등과 산학연 협력, 기술이전 및 인재양성 활발.</li> <li>• 스타트업 허브, 인큐베이션 공간, 글로벌 투자유치 컨퍼런스 등 네트워크 구축.</li> <li>• 브레멘인베스트는 해외 인재 유치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li> </ul>
국가 브랜드 및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 보호</li> <li>• 금융·투자 환경 우수</li> <li>• 글로벌 혁신도시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멘은 독일 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시장 개방, 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 브레멘은 유럽 내 비즈니스 친화성, 글로벌 혁신도시, 녹색수도로서 신뢰도 높음.</li> <li>• 환경·지속가능성, 삶의 질, 사회적 안정성,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에 강점</li> </ul>

## □ 부산

- 부산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전략(싱가포르식 국제 비즈니스 자유도시)과 특별법 추진, 원스톱 기업지원단 신설을 통해 첨단 오피스·금융센터·항만 인프라와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금융 기회발전특구를 개발하며, 독일 KSB(해양플랜트, 미음산단 공장), 비엠티(전기제어, 기장군 제2공장), 드라이브포스(친환경 선박,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심플플래닛(바이오푸드테크, 본사 이전), 파이어볼(차량용 세정제, 본사 이전) 등 국내외 첨단기업 및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AI·빅데이터·바이오·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도권·해외 기업 본사 이전 및 재투자를 활성화했음.
- 투명한 법제도와 지방세 감면·입지보조금(토지매입비 5~20%, 설비투자비 3~30%)·고용보조금(1인당 200만~600만 원)·R&D 인력 고용보조금(1인당 1,000만~2,400만 원) 등의 인센티브,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그램(플라이-워케이션, 인바운드 지원사업)을 활용해 2024년 1분기 FDI 신고·도착액 각 2억 달러 이상(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급증)을 달성하고 2021~2023년 연 2~4조 원 역대 최대 투자유치로 2024년 6조 원 시대 진입 가시권에 들어서며, 첨단기술·친환경·디지털금융 등 고기술 산업 투자를 집중 유치해 글로벌 투자 허브 위상을 강화했음.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전략 및 특별법 추진</li> <li>• 원스톱 기업지원단 및 전담 공무원 배치</li> <li>•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싱가포르식 국제 비즈니스 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범정부·시 전담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추진, 규제혁신·세제감면·외국인 투자지역 특례 등 혁신적 정책을 추진 중.</li> <li>• 원스톱 기업지원단 신설 및 대규모 투자사업장에 전담 공무원 배치로 투자 신속 지원 체계 구축.</li> </ul>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투자진흥기금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2013년)로 국내외 기업, 수도권 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다양한 기업 유치와 지원 근거 마련.</li> <li>지방투자촉진보조금(최대 333억 원), 투자진흥기금(최대 1,780억 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li> </ul>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li> <li>간소화된 행정 및 원스톱 지원</li> <li>첨단 인프라 및 산업단지 개발</li> <li>생활 및 환경 친화적 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이익 자유로운 이동,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제공.</li> <li>원스톱 지원단을 통한 행정 간소화, 투자 진입장벽 해소.</li> <li>첨단 오피스, 연구시설, 금융센터, 첨단제조 클러스터, 세계적 항만·공항 인프라, 우수한 교육·의료·문화 환경.</li> <li>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금융 기회발전특구,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생태계 조성</li> </ul>
인센티브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금융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용지매입비·설비투자 지원)</li> <li>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li> <li>인재 유치 및 비자 지원</li> <li>맞춤형 보조금 및 기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감면, 입지보조금(토지매입비 5~20%), 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비 3~30%), 고용보조금(1인당 200만~600만 원),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1인당 1,000만~2,400만 원), 교육훈련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li> <li>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및 거주 허가 지원,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그램(예: 플라이-워케이션, 인바운드 지원사업) 운영</li> </ul>
성공 사례 및 주요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본사R&amp;D 센터, 첨단기업 유치</li> <li>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성장</li> <li>수도권·해외 기업 본사 이전 및 재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 KSB(해양플랜트, 미음산단 공장 설립), 비엠티(전기 제어, 기장군 제2공장), 드라이브포스(친환경 선박, 동남권 방사선외과학산단), 심플플래닛(바이오푸드테크, 본사 이전), 파이어볼(차량용 세정제, 본사 이전) 등 국내외 첨단 기업 및 스타트업 집적.</li> <li>수도권 및 해외 기업 본사 이전, 재투자 활발. 공유기업(여기야팩토리 등)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일자리 창출</li> </ul>
투자유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I 및 국내 투자 급증</li> <li>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li> <li>고기술 산업 투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도착액 각 2억 달러 이상,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급증.</li> <li>2021~2023년 역대 최대 투자유치(연 2~4조 원), 2024년 6조 원 시대 진입 가시권.</li> <li>첨단기술, 친환경, 바이오,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등 고기술 산업 투자 증가</li> </ul>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li> <li>산학연 협력 강화</li> <li>스타트업 허브 및 인큐베이션 공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인바운드 지원사업(플라이-워케이션, 플라이앤케이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으로 해외 인재 및 벤처캐피탈 유치.</li> <li>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지역 대학과의 산학연 협력 강화.</li> <li>스타트업 허브, 인큐베이션 공간, 글로벌 투자유치 컨퍼런스 등 네트워크 구축.</li> </ul>
국가 브랜드 및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재산권 보호</li> <li>금융·투자 환경 우수</li> <li>글로벌 혁신도시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은 세계적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시장 개방, 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글로벌 허브도시, 금융 기회발전특구,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생태계 조성으로 신뢰도 높음.</li> <li>환경·지속가능성, 삶의 질,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에 강점.</li> </ul>

## □ 울산

- 울산시는 '산업수도' 비전과 친기업 정책(특구 지정 신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통해 석유화학·이차전지·자동차·AI·녹색에너지 등 주력 및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9조 원, 석유화학 확대), 현대차·삼성SDI 생산시설 증설, AWS-SK그룹 AI 데이터센터(7조 원, 미포국가산단 103MW 규모)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첨단제조·에너지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2022년 민선 8기 출범 후 373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냈음.
- 투명한 행정 절차와 지방세 감면·입지·설비 투자 보조금·R&D·고용 지원 등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활용해 2022~2025년 3년간 총 32.7조 원 투자유치(주요 산업 23조 원) 및 2만 명 이상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2024년 20.7조 원(전임 대비 대폭 증가)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며, 2025년 5.17조 원 목표를 세워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 전력 공급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음.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수도' 브랜드 및 친기업 정책</li> <li>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조례</li> <li>전담조직(현장지원 TF, 투자유치 전담매니저) 운영</li> <li>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규제혁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산은 '산업수도'로서의 명성을 살려 친기업 정책(인허가 단축,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조성 등)을 강화하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로 지원 근거 마련.</li> <li>현장지원 전담팀(TF)과 투자유치 전담매니저를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 인허가 신속화(예: 현대차 전기차 공장 인허가 3년→10개월 단축).</li> <li>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등 혁신적 인센티브 제공, 11개 선도기업 22조 원 투자 계획</li> </ul>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li> <li>간소화된 행정 및 원스톱 지원</li> <li>첨단 인프라 및 산업단지 개발</li> <li>생활 및 환경 친화적 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이익 자유로운 이동,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제공.</li> <li>현장지원팀, 투자유치 전담매니저 등 원스톱 지원 체계로 행정 간소화, 투자 진입장벽 해소.</li> <li>온산·울산미포 등 국가산업단지, 첨단 오피스, 연구시설, 세계적 항만·공항 인프라, 우수한 교육·의료·문화 환경.</li> <li>친환경·지속가능 도시 조성,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7,751만 원(2022년 기준, 전국 1위)</li> </ul>
인센티브 및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제·재정 인센티브(특구 내 세제특례, 입지보조금 등)</li> <li>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li> <li>인재 유치 및 비자 지원</li> <li>맞춤형 보조금 및 기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회발전특구 내 세제·재정 지원,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li> <li>연구개발(R&amp;D) 및 이전·창업기업 특별보조금, 전문 인력 양성(지역대학 혁신 등).</li> <li>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및 거주 허가 지원,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그램.</li> <li>2025년 1,507억 원 등 대규모 예산 투입,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li> </ul>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상세 설명/배경
성공 사례 및 주요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국내 대기업 본사·공장 유치</li> <li>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성장</li> <li>수도권·해외 기업 본사 이전 및 재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자동차(전기차하이퍼캐스팅 공장), 에쓰오일(사힌 프로젝트 9조2천억 원), 삼성SDI(배터리·양극재 공장), 고려아연(이차전지 소재), 덕산하이메탈(반도체 소재), 롯데케미칼(탈K가스(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국내외 첨단기업 및 스타트업 집적.</li> <li>온산·울산미포 산단에 네덜란드, 일본, 독일 등 해외기업 투자 확대</li> </ul>
투자유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I 및 국내 투자 급증</li> <li>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li> <li>고기술 산업 투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12억 달러(역대 최대), 누적 162억 달러.</li> <li>2022년 7월~2024년 4월 373개 기업에서 20조7천억 원(석유화학 46%, 이차전지 등 신산업 34.9%, 자동차·조선 17.1%) 투자 유치.</li> <li>2022년 한 해 국내 4조7천억 원, 해외 33억 달러(4조3천억 원 상당) 투자 유치, 5,600명 고용 창출</li> </ul>
글로벌 네트워크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인재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li> <li>산학연 협력 강화</li> <li>스타트업 허브 및 인큐베이션 공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인재 유치, 산학연 협력(울산대, 울산과학기술원 등), 스타트업 허브 및 인큐베이션 공간 운영.</li> <li>전담매니저, 현장지원팀 등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 글로벌 마케팅 강화</li> </ul>
국가 브랜드 및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재산권 보호</li> <li>금융·투자 환경 우수</li> <li>글로벌 혁신도시 이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적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시장 개방, 이익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li>'산업수도'로서의 신뢰도,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 인프라, 환경·지속가능성, 삶의 질, 문화적 다양성 등으로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에 강점</li> </ul>

## □ 시사점 도출

- 인천시는 싱가포르·타이베이·상하이·홍콩·선전 등 글로벌 도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제개발청(EDB)이나 InvestHK와 유사한 전담 투자유치 기관을 신설하고, 항공·물류·바이오·첨단제조 등 우선순위 산업을 선정·클러스터링 전략으로 추진하며, 원스톱 행정 지원과 FTZ(자유무역지대) 확대를 통해 투명한 법제도와 간소화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MNCs의 아시아 거점화와 R&D 센터 유치를 촉진하고, 2023~2024년 FDI 유입 증가(세계 상위권 수준)와 같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함.
- 요코하마·함부르크·코펜하겐·브레멘·부산·울산의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으로, 인천은 미나토 미라이 21이나 HafenCity 같은 대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송도·청라 국제도시를 첨단 인프라·스타트업 허브로 재개발하고, 세계 감면·R&D 400% 세액공제·영주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 패키지와 글로벌 인재 유

치(골드카드·비자 프로그램)를 확대하며, 산학연 협력 및 PPP(공공-민간 파트너십)를 활성화하여 2024년 6조 원대 투자유치 목표를 넘어 일자리 창출(1만 명 이상)과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투자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Ⅲ

## 산업별 동향 및 인천의 경쟁력 분석

### 1 바이오 산업

#### □ 글로벌 바이오 산업 동향

- 2024년 글로벌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는 약 4,830억 달러이며, 2025년에는 5,460억 달러로 성장이 전망됨. 2034년까지는 연평균 13.6% 성장하여 약 5.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는 북미가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럽은 안정적인 성장을, 아시아는 중국,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이 새로운 바이오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

#### □ 글로벌 바이오 산업 트렌드

- 신약 개발, 단백질 구조 예측 등에서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정밀의료 및 유전자 치료 분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합성생물학, 바이오 기반 소재 등 지속가능성 중심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항체, 단백질 등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 국내 바이오 산업 동향

- 2023년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약 12조 4,104억 원이며, 2028년에는 1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2025년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술수출 증가에 힘입어 약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됨.
-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신약개발과 디지털바이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항체약물접합체(ADC),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신규 모달리티) 중심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

#### □ 인천의 산업 경쟁력

- 인천은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116.5만 리터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음.

-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는 80여 개의 기업과 10개의 대학·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및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SWOT 분석
  - 강점: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 국제공항 및 항만을 통한 지리적 이점,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활발한 정책적 지원.
  - 약점: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산업 생태계, 전문 인력 부족,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는 데 겪는 어려움.
  - 기회: COVID-19 이후 글로벌 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가능성, 국제 행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위협: 서울, 경기 등 인근 지역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

## 2 반도체 산업

### □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

-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9% 성장한 6,270억 달러로 전망되며, 2025년에는 11.2% 추가 성장하여 6,9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24년 글로벌 시장의 50.94%를 차지하며 최대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북미는 AI 반도체 수요를 중심으로 2025년 38.9%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

### □ 글로벌 반도체 산업 트렌드

- AI 수요 급증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기술 확대로 메모리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3nm 이하 초미세 공정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소비자 가전, 자동차, 산업용 반도체 수요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는 급증하는 추세임.

## □ 국내 반도체 산업 동향

- 2024년 국내 반도체 수출액은 약 1,4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AI 및 자율주행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점진적 성장세가 전망됨.
- HBM, AI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용인, 평택 등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 생산기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 인천의 산업 경쟁력

- 인천은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테스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세계 2, 3위 후공정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위치해 있음.
- 2022년 기준 인천의 반도체 수출액은 168억 달러로 인천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했으며, 전국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의 약 30%를 담당하는 등 높은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 SWOT 분석

- 강점: 항만과 공항을 통한 원자재 수급 및 제품 수출입 용이, 다양한 지원 및 연구기관 밀집, 반도체를 8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 약점: 소규모 업체 비중이 높아 대형 기업과의 경쟁에 어려움, 높은 산업 단지가, 전문 인력 양성 기반 부족.
- 기회: 글로벌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시장 개척 기회,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국내외 투자 유치 가능성, 지역 내 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위협: 중국 등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 관련 규제 및 정책 변화 가능성, 세계 경제 불황 등 경제적 불확실성.

### 3 물류 산업

#### □ 글로벌 물류 산업 동향

- 2024년 글로벌 물류 시장 규모는 약 11.23조 달러로 추산되며, 2034년까지 연평균 8.36% 성장하여 23.1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24년 기준 세계 시장의 48.7%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북미는 첨단 인프라와 자동화 도입이, 유럽은 친환경 물류와 지속가능성 정책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 □ 글로벌 물류산업 트렌드

- 전기차, 대체 연료 등 친환경 물류 도입과 창고 및 물류센터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
- IoT,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 및 디지털화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확대에 의해 빠르고 효율적인 라스트마일 배송 혁신이 확산되고 있음.

#### □ 국내 물류산업 동향

- 2023년 국내 물류산업의 GDP 규모는 92조 8,000억 원이며, 온라인 쇼핑 성장과 첨단 물류센터 공급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탄소중립 등 친환경 물류와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으며, IoT,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운영이 보편화되고 있음.

#### □ 인천의 산업 경쟁력

- 인천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2위 항공화물 처리 능력을 갖춘 인천국제공항과 세계 50위권 컨테이너 처리량을 가진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음.
- 인천시는 물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투자 기업에 부지 임대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 SWOT 분석

- 강점: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전략적 위치, 잘 구축된 물류 인프라, 물류 관련 정부 지원 정책.
- 약점: 높은 인건비 등 운영 비용 부담, 전문 기술 및 관리 인력 부족, 자동화 등 최신 기술 도입 속도 지연.
- 기회: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풀필먼트 센터 수요 증가, 글로벌 물류 시장 확장에 따른 중심지로서의 입지 강화, AI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 위협: 서울, 경기 등 인근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 글로벌 경제 불황에 따른 성장 제한 위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

## 4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 □ 글로벌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동향

- 2024년 글로벌 항공 MRO(정비·유지·보수) 시장은 약 889억 달러, UAM(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은 약 46억 달러, 자율주행차 시장은 약 2,07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세 분야 모두 높은 성장률이 전망됨.
- 지역별로는 북미가 항공 MRO, UAM, 자율주행차 시장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고, 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지원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 글로벌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트렌드

- AI·빅데이터 기반 예지정비, 자동화, eVTOL(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 등 첨단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
- 탄소중립, 친환경 소재 및 공정 등 지속가능성 중심의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으며, 도심형 버티포트 등 전용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음.

## □ 국내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동향

-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항공 MRO 시장을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UAM 상용화, 2035년 자율주행차 대중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사업과 인프라 확충이 추진되고 있음.
- 대기업과 스타트업, 통신사, 건설사 등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AI, 5G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 인천의 산업 경쟁력

- 영종도에 62만㎡ 규모의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스라엘 IAI, 미국 아틀라스항공 등 글로벌 항공 MRO 기업과 대한항공의 대규모 엔진 정비공장을 유치했음.
- UAM 실증 노선을 구축하고 국토부 실증 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가 드론전용비행시험장과 인증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구월, 송도 등 4개 지구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었음.

### ○ SWOT 분석

- 강점: 국내외 교통 허브로서의 전략적 위치, 드론, UAM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 역량,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 약점: 높은 자본 투자 및 운영 비용, 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 부족, 시장을 주도할 대기업 부족.
- 기회: 글로벌 드론 및 UAM 시장의 성장,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 증가, AI, IoT 등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 가능성.
- 위협: 국내외 경쟁 심화,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 변화의 민감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위축.

## 5 관광 산업

### □ 글로벌 관광 산업 동향

- 2024년 글로벌 관광 산업 시장 규모는 약 11.7조 달러로 추산되며, 2035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하여 19.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유럽이 2024년 7억 4,700만 명의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는 모바일 기반 여행과 역내 관광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 글로벌 관광 산업 트렌드

-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이 급증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여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

### □ 국내 관광 산업 동향

- 2025년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1,873만 명으로 증가해 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K-컬처 융합 관광 상품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AI, 빅데이터, VR/A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스마트 관광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 □ 인천의 산업 경쟁력

- 연간 7,000만 명 이상 처리 가능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계 180개 이상의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서울까지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여 수도권 관광과 연계가 용이함.
-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MICE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화도, 개항장 등 역사문화 자원과 을왕리 등 해양 관광 자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

## ○ SWOT 분석

- 강점: 지리적 위치와 우수한 접근성, K-콘텐츠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기회, 건강 및 웰빙 관광 트렌드 부합.
- 약점: 다채로운 체험 활동 및 여행 패키지 부족, 서울 대비 낮은 관광지 인지도,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한 유연성 부족.
- 기회: 전 세계적인 여행 수요 회복,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발전, 복합리조트 및 헬스케어 관광 시장 성장.
- 위협: 서울, 제주 등 주요 관광지와의 경쟁 심화, 경기 불황에 따른 관광 수요 감소 가능성, 환경 보호 관련 규제 강화.

## 6 수소 산업

### □ 글로벌 수소 산업 동향

- 글로벌 수소 시장은 2024년 약 230억 달러에서 2050년 1,657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
-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유럽은 강력한 정책을 통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북미 역시 높은 에너지 수요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확장이 기대됨.

### □ 글로벌 수소 산업 트렌드

- 재생 가능 에너지 비용 하락과 정부 인센티브 증가로 그린 수소 생산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전기분해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 충전소 등 인프라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 국내 수소 산업 동향

- 국내 수소 산업은 2020년 1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6.8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측됨.

- 기존의 스팀 메탄 개질(SMR)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고급 전기분해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sup>1)</sup> 개설로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 인천의 산업 경쟁력

- 인천은 SKI E&S가 준공한 연간 3만 톤 생산 능력의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음.
- 전국 최초로 액화수소충전소를 준공했으며, 2024년까지 480대의 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환하는 등 공공 교통 전환을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 SWOT 분석
  - 강점: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 시설 보유, 전국 최다 수소 버스 보급 실적, 정부 및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 약점: 그린 수소 생산에 필수적인 전기분해 기술의 국제 경쟁력 부족, 산업 성장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제한.
  - 기회: 전 세계적인 청정 수소 수요 증가, 덴마크 등 해외 국가와의 기술 협력, 수소 생산 및 공급 인프라 확충 계획.
  - 위협: 경쟁력 있는 해외 기술과의 격차, 정부 정책 변화 및 지원 축소 가능성, 수소 생산·저장·운송 관련 기술적 도전 과제 존재.

## 7 기후 테크

### □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 동향

-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은 2025년 324.9억 달러에서 2029년 794.5억 달러로 연평균 25%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
-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혁신 기술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북

1) 수소발전 입찰시장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CHPS):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수소 또는 수소 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 및 공급하기 위해 개설된 전문 시장임. 이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서 수소발전 분야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정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미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자금 조달을 선도하고 있고, 유럽은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 트렌드

-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저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기차(EV) 채택이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 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목표로 하는 순환 경제 모델이 주목받고 있으며, AI와 IoT를 통합하여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 □ 국내 기후테크 산업 동향

- 2025년 2월 기준 총 272개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활동 중이며, 특히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소재 등 에코테크(25.7%)와 푸드테크(27.6%) 분야가 활발함.
- 정부는 2030년까지 14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AI 기술을 기후테크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것으로 예상됨.

## □ 인천의 산업 경쟁력

- 인천 서구에 기후테크 맞춤형 산단 조성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으며, 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물류 중심지로서 기후테크 제품의 수출 및 국제 협력에 유리함.
-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도시로서 국제 환경 및 녹색 금융 도시로 브랜드화하고 있으며,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등 지역 연구 자원이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 ○ SWOT 분석

- 강점: 145조 원 규모의 정부 투자 등 강력한 지원, GCF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위상,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프로그램.
- 약점: 일부 기술의 상용화까지 시간 소요, 규제 및 정책의 불확실성, 초기 단계의 시장 성숙도.
- 기회: 정부의 지속가능 개발 지원 프로그램, 기업들의 탄소 발자국 감소 요구 증대, 기후 변화 관련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솔루션 필요성 증대.

- 위협: 높은 개발 및 상용화 초기 비용, 일부 기술의 상용화 단계 미도달,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경쟁.

## 8 로봇 산업

### □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

- 2025년 글로벌 로봇 시장은 약 500억~1,300억 달러로 전망되며, 연평균 15~20%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30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중국, 일본, 한국이 제조·물류·전자상거래 분야를 주도하고 있음. 북미는 첨단 자동화, 유럽은 협동로봇과 스마트팩토리 확산이 특징임.

### □ 글로벌 로봇 산업 트렌드

- AI 및 머신러닝 통합으로 로봇의 자율성과 지능이 향상되었으며,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코봇)이 중소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디지털 트윈 기술과 모듈형 설계를 통한 맞춤형 로봇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으며,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구독형 서비스(RaaS) 모델이 확대되고 있음.

### □ 국내 로봇 산업 동향

- 2023년 국내 로봇 산업 매출 규모는 약 6조 원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100만 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제조용 로봇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의료·물류·가정용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또한,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구독형 서비스(RaaS)가 확산되는 추세임.

### □ 인천의 산업 경쟁력

- 청라국제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특화단지인 '인천로봇랜드'를 조성 중이며, 로봇타워, R&D센터 등 핵심 지원 인프라가 이미 운영되고 있음.
- 에스피지, 유진로봇 등 중견 로봇 기업이 앵커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5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공급망 경쟁력 강화 및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있음.

○ SWOT 분석

- 강점: 국내 최대 로봇 클러스터 '인천로봇랜드' 조성, AI·휴머노이드 기술 선점 노력, 인천국제공항·항만과 인접한 우수한 물류 인프라.
- 약점: 모터, 감속기 등 핵심 부품의 높은 해외 수입 의존도(70% 이상), 전체 기업의 85.5%가 소기업인 중소기업 중심 구조, 로봇 운용 및 개발 전문 인력 부족.
- 기회: 의료·물류 등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레전드 50+ 사업 등), 2026년 세계 로보컵 유치를 통한 기술 실증 및 네트워크 구축.
- 위협: 일본, 중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 반도체 등 부품 수급 불안정, 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등 낮은 사회적 수용성.

## N

# 산업별 인천시 정책 및 투자환경 분석

## 1 바이오 산업

### □ 인천시 산업 동향

- 인천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116만 5천 리터의 생산능력을 2032년까지 214만 5천 리터로 늘릴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총 8개 공장을 완공해 132만 4천 리터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며, 셀트리온과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음.
-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연구개발, 원부자재 공급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5년 본사와 연구소를 송도로 이전할 예정임. 동아쏘시오홀딩스, 머크, 얀센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송도에 진출해 있음.
- 인천-시흥 지역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 인천시 주요 지원 정책

- 인프라 구축: 송도, 영종도, 남동공단을 연계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2031년까지 약 2,726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함.
- 인재 양성: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하여 연간 2,000여 명의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K-바이오랩허브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과 유망기업 육성을 지원함.
- 기업 지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초기 바이오 창업 기업을 위한 혁신펀드(빅웨이브)를 운영함. 또한, 바이오·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함.
- 글로벌 협력: 미국 유타대학교와 협력하여 바이오 기업의 FDA 인허가 및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바이오 관련 국제 컨퍼런스 및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함.

## □ 인천시 산업별 투자환경(PEST 분석)

- 정치적: 인천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송도국제도시를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연구자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바이오맵' 플랫폼 개발 등 정치적 지원이 바이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
- 경제적: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힘입어 인천시는 기업들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신규 상장 기업 수 감소는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속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임.
- 사회적: 건강과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인천시는 '대한민국 바이오아카데미'와 같은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바이오 산업 인식을 높이고 미래 인력 풀을 확대하고 있음.
- 기술적: 인천시는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 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마크로젠과 같은 기업이 송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기술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

## 2 반도체 산업

### □ 인천시 산업 동향

- 반도체는 2016년 이후 인천의 수출품목 1위 산업으로, 2022년에는 인천 전체 수출의 30.9%에 해당하는 168억 달러를 기록했음.
- 인천에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포함해 약 1,300개의 관련 기업이 집중되어 강력한 산업 기반을 이루고 있음.
- 인천시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산업 육성을 위해 송도와 남동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연구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인천은 세계 2위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송도 테스트동 증축 및 인하대, 연세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 인천시 주요 지원 정책

-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2023년부터 반도체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 뿌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지원 대상을 16개 기업으로 확대했음.
-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 인천을 '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반도체 인프라 구축 (송도, 남동산단):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연구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양성, 신소재 및 부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특히 송도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신설하는 등, 인하대와 함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패키징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첨단패키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 □ 인천시 산업별 투자환경(PEST 분석)

- 정치적: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후공정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경제적: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는 인천시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와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신규 상장 기업 수가 저조한 점은 개선 과제로 남아있음.
- 사회적: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는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음.
- 기술적: 인천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3D 프린팅 및 열교환기 기술 등 제조 공정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잠재력을 키우고 있음.

### 3 물류 산업

#### □ 인천시 산업 동향

- 인천시는 CJ대한통운 인천 GDC와 로지스밸리 전자상거래 복합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센터(GDC)를 확장하고 있음. CJ대한통운은 물류 로봇 시스템 '오토스토어'를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로지스밸리는 K-컬처 화물의 수출입을 주로 다룰 예정임.
- 바이오의약품 등 특수 화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해운이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등 특수포장 및 바이오 물류 인프라가 강화되고 있음.
- 제4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 사업과 인천남항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 □ 인천시 주요 지원 정책

- 디지털 전환 지원: 아암물류2단지과 인천국제공항에 스마트물류센터 등 첨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물류 문제 해결을 지원함.
- 소상공인 지원: 인천지하철 역사에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고, 택배시장 평균 가격 대비 50% 저렴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물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 친환경 물류 추진: 물류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물류장비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신재생 에너지 물류 분야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특화산업 육성: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배후항만을 조성하여 물류와 연계된 특화 산업을 지원함.

#### □ 인천시 산업별 투자환경(PEST 분석)

- 정치적: 인천시는 물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톱텐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투자 유치 산업지도를 개발하고, 제4경인고속도로와 같은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정치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경제적: 물류는 바이오, 반도체와 함께 인천의 전략 산업 중 하나로, '2024년 지역물류 시행계획'에 약 2,3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물류 인프라 구축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함.
- 사회적: 물류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천시는 '물류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업계 및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기술적: 인천시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한 물류센터와 같은 혁신 기술 도입은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하여 기술 중심의 성장을 이끌고 있음.

## 4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 □ 인천시 산업 동향

- 항공 MRO: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항공 MRO(정비)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신엔진정비공장 착공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통한 인재 양성 등 산업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
- UAM (도심항공교통): 인천시는 UAM을 활용해 도서 지역 1일 생활권 및 수도권 30분 교통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K-UAM CONFEX를 개최하고 'K-UAM 원 팀'과 협력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임.
- 드론 및 자율주행차: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국가 드론인증센터 및 비행시험장을 유치했으며, 송도 등 4개 지구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는 등 드론과 자율주행차 산업의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음.

### □ 인천시 주요 지원 정책

- 항공 MRO: 2025년까지 항공기 개조, 중정비, 엔진정비를 아우르는 MRO 클러스터 완성을 목표로 이스라엘 IAI, 아틀라스항공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영종도에 엔진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음.

- UAM 및 드론: 2025년 UAM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인천국제공항-도심 연결 노선을 구축하고,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을 추진함. 또한, 국가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기반으로 드론 기술 고도화와 공공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함.
- 자율주행차: 4개 지구 총 35km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노선버스 연계 방안을 추진함.

## □ 인천시 산업별 투자환경(PEST 분석)

- 정치적: 정부의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천시는 UAM과 드론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2026년 UAM 실증사업 계획 등 구체적인 정책 배경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함.
- 경제적: 미래형 모빌리티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인천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교통 센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큼. UAM과 드론은 교통 혼잡 해소와 물류 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특히 항공 MRO 분야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사회적: 시민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첨단 교통수단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UAM과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됨.
- 기술적: 인천시는 UAM 기술 개발과 드론 산업을 위한 R&D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AI 기반 항공기 진단 시스템과 eVTOL(전기 수직이착륙 비행체)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과 통신 인프라 고도화는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며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목표에 기여함.

## 5 관광 산업

### □ 인천시 산업 동향

- 인천 영종도를 중심으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5성급 호텔, 아레나 공연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포함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송도에 K-POP 인프라, 청라에 영상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여 미래 문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음.
- 강화군과 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임. 다만, 골든테라 시티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일부 어려움도 겪고 있음.

#### □ 인천시 주요 지원 정책

- K-콘텐츠 산업 육성: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IFEZ K-콘텐츠산업 육성 연구'를 수행하고, 영종 복합리조트,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웰니스 관광 육성: 2024년 신규 웰니스 관광지 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총 25개소로 확대하고,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해양치유 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인천 치유스테이'와 같은 체류형 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 인천 영종도를 중심으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 총 3개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을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기회발전특구 추진: 강화군과 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 대상지로 검토 중이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뉴홍콩시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

#### □ 인천시 산업별 투자환경(PEST 분석)

- 정치적: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를 통해 K-콘텐츠 및 복합리조트 개발을 포함한 관광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호텔 및 관광 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는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임.
- 경제적: 의료관광, K-콘텐츠, 복합리조트 개발을 전략 산업으로 삼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투자유치 산업지도' 마련 계획은 관광 기업들이 인천에 투자할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임.

- 사회적: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는 인천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을 제공함. 인천시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K-드라마 촬영지 투어, 웰니스 관광 패키지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 기술적: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과 VR/AR, 스마트 관광 서비스 등 첨단 기술 도입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인천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음. 헬스케어 기술 발전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관광 상품에 포함시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함.

## 6 수소 산업

### □ 인천시 산업 동향

- 인천시는 SKI E&S와 협력하여 바이오 수소와 부생수소를 활용한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IGE)를 조성하는 등 수소 생산 및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 버스를 보급했으며, 2025년까지 수소 승용차 2,820대와 수소 버스 64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15개소를 운영 중임.
- 인천시는 수소 산업을 통해 5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 인천시 주요 지원 정책

- 수소 생산 및 공급: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전략'을 바탕으로 SKI E&S와 협력하여 바이오/부생수소를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수소 공급 기반을 마련함.
- 수소 모빌리티 보급: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수소상용차(버스, 트럭)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여 전국 최다 보급 실적을 달성했으며, 2025년에는 수소승용차 700대, 수소버스 160대, 수소트럭 12대(전국 최다)를 추가 지원할 계획임.

- 산업 육성 계획 수립: 2025년 3월부터 수소산업 육성 및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수소산업위원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자문하고 2035년까지 수소생산클러스터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R&D 및 인프라 유치: 수소산업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R&D 역량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15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임.

#### □ 인천시 산업별 투자환경(PEST 분석)

- 정치적(Political): 인천시는 수소 경제 로드맵, 수소산업위원회 운영 등 수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경제적(Economic): SKI E&S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수소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수소 산업을 통해 5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음.
- 사회적(Social): 인천시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교육 제공 등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480대의 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환하는 등 공공 교통 전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기술적(Technological):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연료전지 지역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술적 기반이 탄탄함. 지속적인 R&D 추진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7 기후테크 산업

#### □ 인천시 산업 동향

- 인천시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소 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AI 기반의 기후 예측 모델 개발에 3.1조 원을 투자하여 기후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인천시는 GCF(녹색기후기금)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GGHK)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협력 및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 인천시 주요 지원 정책

- 탄소중립 목표 및 산업 육성: 2030년까지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수출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을 35.7%로 높이기 위해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수소 에너지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함.
- 기후재난 대응: 기후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음.
- 국제 협력 및 글로벌 진출: GCF(녹색기후기금)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GGHK)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협력 및 R&D 지원을 강화하여 기후테크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

## □ 인천시 산업별 투자환경(PEST 분석)

- 정치적: 인천시는 203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GCF와의 국제 협력, 145조 원 규모의 정부 투자 계획 등 기후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및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경제적: 민간 투자와 정책펀드 조성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2030년까지 수출 100조 원,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사회적: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후테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취약계층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기술적: AI 기반 기후 예측 모델 개발에 3.1조 원을 투자하고,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기술적 혁신을 도모하고 있음.

## 8 로봇 산업

### □ 인천시 산업 동향

- 청라국제도시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특화단지인 '인천로봇랜드'를 조성 중이며, 로봇타워, R&D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산업, 상업, 업무, 테마파크 등 복합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음.
-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점하고, 관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핵심 기술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강화하고 있음. 2026년 '로보컵' 세계대회 유치 등 글로벌 R&D 네트워크도 확대 중임.
- 인천로봇랜드 내에는 이미 60여 개의 로봇기업이 입주하여 개발, 설계, 제조, 시험 등 산업 전주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는 스타기업 유치와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 인천시 주요 지원 정책

- '로봇 시티 인천'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로봇산업 규모 3 조원 + $\alpha$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로봇랜드 조성, 로봇혁신기업 육성, 로봇도입 확산 전략을 추진함.
-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으로 인천로봇랜드를 조성하여 원스톱 인프라를 제공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함.
- R&D 및 기술 실증 지원: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AI·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로보컵 등 국제대회와 연계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지원함.
- 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로봇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R&D,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로봇 도입 비용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함.

### □ 인천시 산업별 투자환경(PEST 분석)

- 정치적: 8,988억 원 규모의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세계 로보컵 유치를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 부재는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경제적: 인천 로봇기업의 85.5%가 소기업이며 핵심 부품의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여 원가 경쟁력이 취약한 구조임. 하지만 로봇랜드 내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음.
- 사회적: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 리쇼어링 및 서비스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인천시는 로봇캠프 등 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나, 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등 낮은 사회적 수용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임.
- 기술적: 인천테크노파크 주관으로 AI·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봇타워, R&D센터 등 첨단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음.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시티와의 연계를 통해 물류·엔터테인먼트 로봇 솔루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V

산업별 사업 모델

1 바이오 산업

□ 정부의 정책

- 첨단재생바이오 발전 전략: '첨단재생바이오 아시아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연간 국가 R&D 투자 1,000억 원 이상, 임상연구 실시 병원 200개 이상 확보 등을 목표로 설정했음.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며, 혁신적인 제약 및 의료기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3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 미래·신산업 분야에 정부 주도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며, 주력산업은 민간 주도 투자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R&D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

□ 인천시 정책

-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대체 물질 확보를 위해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거버넌스 운영, 지원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함.
- 바이오 기반 제품 수요 활성화: '인천형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주도의 수요를 창출하며, 소비 문화를 확산시켜 시장을 활성화함.
-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개발 지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소재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관련 컨퍼런스 개최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지원함.

□ 인천시 산업 여건

- 바이오 클러스터 확장: 송도권역은 기존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대형병원과 연계한 협력 모델 구축이 가능하며, 청라권역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에너지 발전과 수소 생산을 연계한 신규 사업 창출 잠재력이 높음.

- 다양한 사업 기회: 인천의 산업 환경은 보관/패키징 전문업체, 원료/중간재 공급업체,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사업자, 드론용 수소 공급업체, 바이오 R&D 수행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 적합함.
- 성장 잠재력: 인천의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인 생산 역량, 고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적극적인 R&D 및 인력 양성 노력,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사업 모델: '생산-물류-R&D-정책 지원'이 통합된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 허브 모델

핵심 타겟팅 분야	사업 모델
①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생산 제조 및 공급망 연계 허브 활용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집적된 인천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원료의약품(API), 의약품 중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유치하여 생산 효율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극대화함.</li> <li>• CDMO 역량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들을 타겟으로 유치하여, 바이오 제조의 수직·수평적 공급망을 인천 내에서 긴밀하게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li> </ul>
② 바이오 특화 고부가가치 물류 및 글로벌 유통망 활용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도에 민감한 바이오의약품 운송에 필수적인 콜드체인 물류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신항의 세계적인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원부자재 조달과 완제품의 글로벌 유통을 최적화함.</li> <li>•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구축 중인 대규모 콜드체인 클러스터와 영종 권역을 핵심 거점으로, 바이오 특화 물류 클러스터 조성.</li> </ul>
③ 'R&D-임상-생산-유통' 연계 가속화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국제도시의 K-바이오 랩허브, 글로벌 R&amp;PD 센터, 인력양성센터 등 R&amp;D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부터 임상, 대량 생산, 글로벌 유통까지 전 과정을 인천 내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함.</li> <li>•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와 국제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R&amp;D 성과를 신속하게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함.</li> </ul>

## 2 반도체 산업

□ 정부의 정책

- K-반도체 벨트 조성: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장비 연합기지, 첨단패키징 플랫폼, 팹리스밸리 등 전반적인 공급망을 보완하여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함.

-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AI, 차량용 반도체 등 유망 분야의 팹리스 육성, 반도체 기술 개발, 첨단 패키징 투자 및 글로벌 시장과의 수요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함.
-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설계-제조-후공정에 이르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고,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정했음.

## □ 인천시 정책

- 후공정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2023년부터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2.0' 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앵커기업으로 육성함.
- 고급 인력 양성: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인하대학교에 '인하 첨단 반도체 패키징 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 내 고급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 인천시 산업 여건

- 강력한 산업 기반: 인천에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후공정 기업을 포함해 약 1,200개의 관련 기업이 활동하며 강력한 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높은 수출 비중: 반도체 산업은 인천 전체 수출의 약 27%를 차지하며, 2022년 122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다양한 사업 기회: 인천의 산업 환경은 팹리스, OSAT(자동차, 바이오 위주), 반도체 Repair Center, OSAT소재 기업,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 반도체 R&D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적합함.

□ 사업 모델: '첨단 R&D-고부가가치 후공정-글로벌 물류' 연계 특화 모델

핵심 타겟팅 분야		사업 모델
①	첨단 시스템 반도체 R&D 및 설계 허브 활용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 및 영종 권역의 R&amp;D 플랫폼 개발 계획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인천의 다른 핵심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팹리스) 및 연구개발 기업 유치에 집중함.</li> <li>•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R&amp;D 허브로 조성하고, 지역 내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고급 설계 인력 수급을 지원함.</li> </ul>
②	고부가가치 후공정(OSAT) 및 소재/부품 집적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기존 제조 인프라와 반도체 후공정(OSAT)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OSAT 전문 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적시켜 경쟁력 있는 후공정 클러스터를 구축함.</li> <li>•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영종도의 첨단신산업 플랫폼을 거점으로 입지 지원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련 기업 유치를 촉진함.</li> </ul>
③	'첨단 응용 분야 연계 반도체 솔루션 개발 허브'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핵심 전략 산업인 AI, 자율주행차, 로봇, IoT 등과 반도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함.</li> <li>• 응용 분야별 맞춤형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팹리스 및 R&amp;D 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첨단 기술 생태계를 조성함.</li> </ul>

3 물류 산업

□ 정부의 정책

- 지능화 및 디지털화:'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지능화된 디지털 물류 시스템과 디지털 정보공유 플랫폼 개발을 추진함.
- 산업 환경 변화 대응: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물류 서비스 개발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
- 신사업 육성 및 글로벌화:기후변화 대응 물류 전략을 수립하고, 신사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한·중·일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함.

## □ 인천시 정책

- 글로벌 물류 성장엔진 구현:'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 물류 선도, 글로벌 물류 성장엔진 인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3년 1,3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음.
- 5대 추진 전략:단절 없는 물류거점 및 연계체계 구축, 스마트 기반 디지털 물류 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물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육성, 인천 특화형 물류산업 육성을 5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음.
- 글로벌 경쟁력 강화:높은 지역 특화도와 부가가치 창출력을 바탕으로,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이행 중임.

## □ 인천시 산업 여건

- 고부가가치 물류 시장성:바이오 의약품, 반도체 부품 등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제조업체가 인천 및 경기남부에 대거 입지해 있어, 특수 물류 시장의 잠재력이 큼.
- 항공·해운 물류 클러스터화:항만 및 공항 터미널 운영, 물류창고, 3PL/4PL 등 다양한 물류 기업을 집적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 및 시스템 시장도 함께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우수한 인프라 및 입지 여건:국제공항과 무역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대규모 시장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다양한 물류기업 등 풍부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 사업 모델: '초일류 글로벌 스마트 물류 허브' 구축 모델

핵심 타겟팅 분야	사업 모델
① 초고도화된 글로벌 인프라 활용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세계적인 공항 및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여,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화물에 특화된 운송 및 처리 허브 기능을 강화함.</li> <li>• 대규모 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공급망 관리(SCM) 서비스 기업을 유치하여 물류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임.</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사업 모델
② 스마트 및 자동화 물류 시스템 집적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 신항 배후단지 등 주요 클러스터에 AI, 로봇 자동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유한 스마트 물류 장비 및 시스템 개발 기업을 집중 유치함.</li> <li>• 인천시의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물류 시설을 고도화하고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li> </ul>
③ 전략 산업 연계 특화 물류 서비스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등 인천의 8대 전략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집중함.</li> <li>• 바이오 클러스터를 위한 특화 보관·패키징 서비스, 드론을 활용한 도서 지역 배송 서비스 등 다른 전략 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물류 시장을 창출함.</li> </ul>
④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및 인력 양성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배후단지에서 포장, 조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 활동과 3자/4자 물류(3PL/4PL) 서비스를 강화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류 수요에 대응함.</li> <li>• 물류 자동화 및 스마트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 환경을 제공함.</li> </ul>

## 4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 □ 정부의 정책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040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을 목표로 하는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 단계적 상용화 계획:2025년 운전자 없는 버스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대중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UAM은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에 첫 상용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임.
- 법적 기반 마련:'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23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음.

### □ 인천시 정책

-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원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신기술 전환과 관련 인프라 마련을 돕고 있음.

- 국비 지원 및 인프라 구축: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3년간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인증 평가 센터를 건립할 계획임.
- 드론 및 UAM 사업 추진: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시스템 안정화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물류 경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임.

□ 인천시 산업 여건

- 항공 MRO: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항공 MRO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UAM 및 드론 산업과 시너지를 통해 확장될 전망임.
- UAM:K-UAM 그랜드 챌린지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 개발과 운영 모델을 검증하고 있음.
- 드론 및 자율주행차:물류,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용도의 드론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며, 송도 등지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과 기술 실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사업 모델: '글로벌 초연결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 구축 모델

핵심 타겟팅 분야	사업 모델
① 초고도화된 글로벌 MRO 및 항공물류 연계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허브 기능을 기반으로, 기존 항공기 정비를 넘어 UAM 기체 등 차세대 항공기 MRO 및 고부가가치 부품 제조·수리 분야로 특화하여 투자를 유치함.</li> <li>• 강력한 항공 화물 처리 능력과 연계하여 MRO 부품 물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자동차 제조업 기반을 항공 부품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함.</li> </ul>
② UAM 및 드론 기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허브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다양한 지형(섬, 해안, 도심)을 활용하여 도서 지역 드론 배송, 공항-도심 간 UAM 셔틀 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환경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둠.</li> <li>• 기존 드론 인증센터 및 시험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UAM 기체 및 드론 관련 기술 개발, 인증,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함.</li> </ul>
③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물류 및 스마트 시티 연계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의 첨단 실증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만, 공항, 산업단지 배후 물류 단지 내 자율주행 기반 무인 운송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함.</li> <li>• 스마트 시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도심 내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 배송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함.</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사업 모델
④ 첨단 모빌리티 기술 R&D 및 전문 인력 양성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빅데이터, 센서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amp;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 반도체 등 다른 전략 산업과의 융합 기술 개발을 지원함.</li> <li>MRO, UAM 운항·정비,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 등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li> </ul>

## 5 관광 산업

### □ 정부의 정책

-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2024년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을 통해 특별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해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 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을 약 1조 3,115억 원으로 증액하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 축제를 지원할 방침임.
- 부가세 환급 제도 개선:패키지 관광 외에도 전통, 수상, 의료 관광 등 다양한 숙박 형태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계획임.

### □ 인천시 정책

- 인천관광발전계획:'2025 인천관광진흥 플랫폼 사업'을 통해 5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 60개의 세부사업 과제를 제시했음.
- 인천관광 패러다임 제시:공항 중심의 네트워크형 관광거점 도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국제관광도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평화 관광 중심지, 지속가능한 도시 육성을 패러다임으로 설정했음.
- 해양관광 및 인프라 개발:해양관광지와 도시 테마,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내항재개발, 스타필드 청라, 영종권역 내 복합리조트 등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발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 인천시 산업 여건

- 우수한 인프라 및 접근성: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근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
-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수도권과 가까운 해양관광지로서 해안과 섬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대규모 개발 사업:내항재개발, 스타필드 청라, 영종권역 내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 기대되며, 광역교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

## □ 사업 모델: '글로벌 연계 테마별 하이엔드 관광 허브' 구축 모델

핵심 타겟팅 분야	사업 모델
① 국제 관문 연계 프리미엄 복합 관광 모델 (영종권역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과 기존 복합리조트의 강점을 활용해 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고품격 스톱오버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함.</li> <li>• 고급 호텔, 리조트, MICE 시설을 결합하고 K-POP, 쇼핑, 웰니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여 체류 기간을 늘리고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를 창출함.</li> </ul>
② 다채로운 해양·섬 테마 관광 특화 모델 (강화·옹진 및 영종 용유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해안과 168개 섬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 웰니스, 생태 관광, 레저 스포츠 등 차별화된 테마 관광 상품을 개발함.</li> <li>• 강화 남단의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영종 용유의 복합 해양레저 클러스터 계획과 연계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활용하여 관련 기업 투자를 유치함.</li> </ul>
③ 첨단 기술 및 문화 콘텐츠 융합 스마트 관광 모델 (송도·청라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의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청라의 K-콘텐츠 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AI 기반 맞춤형 여행 추천, VR/AR 체험 콘텐츠 등 디지털 전환 기반의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개발함.</li> <li>• K-콘텐츠와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도시 경관을 강화하며, 서비스 로봇을 도입하여 관광 경험을 고도화함.</li> </ul>
④ 전략 산업 연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관광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물류, 바이오,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첨단 스마트 물류 센터나 바이오 생산 시설 등을 견학하는 산업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함.</li> <li>• 이를 통해 비즈니스 관광 수요를 흡수하고, 인천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경험을 제공함.</li> </ul>

## 6 수소 산업

### □ 정부의 정책

- 수소 경제 로드맵:2040년까지 620만 대의 수소차 생산과 1,200개 이상의 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설정했음.
- 청정 수소 생산 및 인프라 구축: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청정 수소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력 생산에서 청정 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찰 시장(CHPS)을 설립했음.
- 국가 전략 기술 지정:수소 생산 기술(전기분해, 탄소 포집)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R&D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최대 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

### □ 인천시 정책

- 수소산업위원회 운영 및 전략 수립: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며,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반의 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수소 인프라 및 대중교통 체계 구축: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15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 수준인 64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등 민간 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음.
- 수소차 보급 확대:2025년 수소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수소상용차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여 수소 경제 확산을 촉진하고 있음.

### □ 인천시 산업 여건

- 지리적·환경적 여건: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물류 중심지로서 수소 모빌리티 활용에 유리하며, 선박 및 도심항공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소 산업 발전이 가능함.
- 기술 및 산업 여건:수전해 장비 및 차량·발전용 연료전지 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수소차, 선박, 도심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 연료전지가 적용되고 있음.

- 앵커기업 및 R&D:SKI E&S, 현대차 등 앵커기업이 기술 및 생산 역량을 제공하고, 탄소포집형 수소생산 기술이 R&D를 통해 발전하고 있음.

□ 사업 모델: '글로벌 스마트 수소 허브' 구축

핵심 타겟팅 분야		사업 모델
①	글로벌 물류/모빌리티 연계 수소 인프라 모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공항 및 항만 물류 인프라와 연계하여 수소 기반 항공·항만 물류 장비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 연료전지 선박 기술과 연계해 섬 지역 이동수단에 수소 에너지를 적용함.</li> <li>• 수소 드론/UAM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함.</li> </ul>
②	탄소 포집 연계 청정 수소 생산 및 산업 공급 허브 모델 (기 추진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CCU)하여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 산업단지 및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밸류체인 구축함.</li> <li>• 국제기구 및 해외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포집-활용-유통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투자를 유치함.</li> </ul>
③	스마트시티 및 테마별 특화 수소 응용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 스마트시티나 강화·옹진외의 해양치유 특구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소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함.</li> <li>•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빌딩이나 친환경 리조트 모델을 도입하고, 물류 로봇 기술을 수소 인프라 운영에 접목하는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을 모색함.</li> </ul>
④	미래 수소 기술 R&D, 테스트베드 및 전문 인력 양성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소연구개발특구, 로봇랜드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액화수소 운송·저장, 고효율 연료전지 등 미래 수소 기술의 R&amp;D 및 실증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함.</li> <li>•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함.</li> </ul>

## 7 기후테크 산업

□ 정부의 정책

- 기후테크 산업 육성:2030년까지 약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수출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지도를 제공하고 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하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국가적 보호를 강화함.

-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2025년에 2.7조 원을 투자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탄소중립 기술, 기후 예측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 □ 인천시 정책

- 탄소중립 목표 및 산업 육성:204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7개 부문 77개 감축 사업에 174조 4,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을 35.7%로 높이기 위해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수소 에너지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함.
- 녹색기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인천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대기, 폐기물, 수질, 탄소저감 등 6개 분야에 대해 기술사업화, 아이디어 사업화,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함.

## □ 인천시 산업 여건

- 정책 및 국제적 기반: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GCF(녹색기후기금) 유치와 CNCA(탄소중립 도시연합) 가입 예정으로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 인프라 및 기술 역량: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수소 인프라(충전소 13개소, 액화수소플랜트)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천연구원, 인천대학교 등 지역 연구기관이 기술 혁신을 지원함.
- 시장 및 경제적 잠재력:7개 부문 77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수요가 창출되며, 수익창출형 산업단지와 수출 전략으로 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이 기대됨.

## □ 사업 모델: '글로벌 기후 스마트 솔루션 허브' 구축

핵심 타겟팅 분야		사업 모델
①	탄소 포집 및 활용(CCU) 모델의 산업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산업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포집하여 바이오, 화학, 수소 생산 등 다른 산업에 공급하는 고도화된 CCU 밸류체인을 구축함.</li> <li>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관련 R&amp;D 및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GCF와 연계하여 국제 녹색 금융 유치에 집중함.</li> </ul>
②	녹색 금융 플랫폼의 전략 산업 투자 유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CF 및 CNC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천의 '기후 스마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공동 투자 기회를 제공함.</li> <li>인천의 8대 핵심 전략 산업 분야의 기후 친화적 투자 유치에 집중하며, 타겟 기업에 맞춤형 금융 및 세계 지원을 제공함.</li> </ul>
③	기후 스마트시티 및 친환경 인프라 솔루션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도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미래 개발 계획을 기후테크와 융합하여, 스마트 그리드, 분산 에너지 시스템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 구역이나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함.</li> <li>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의 LNG 냉열 활용 계획과 연계하여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화 모델을 구축함.</li> </ul>
④	미래 기후테크 R&D 및 실증 지원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로봇랜드 등 기존 R&amp;D 인프라를 연계하여 차세대 CCUS, 고효율 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 기후테크 분야의 R&amp;D 및 실증을 집중 지원함.</li> <li>기후테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생태계의 핵심 역량을 강화함.</li> </ul>

## 8 로봇 산업

## □ 정부의 정책

- 비전 및 목표: 2030년까지 로봇산업 규모 20조 원 이상 달성 및 로봇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K-로봇경제 실현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비전으로 제시했음.
- 핵심 추진 전략: 감속기, 서보모터 등 8대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며, 제조, 농업, 물류 등 10여 개 분야에서 로봇 도입을 지원함.
- 법·제도 정비 및 글로벌 협력: 기술진보와 산업 변화에 맞춰 '지능형로봇법'을 전면 개정하고, 글로벌 진출 및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인천시 정책

-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인천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인천로봇랜드를 조성하여 원스톱 인프라를 제공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R&D 및 기술 실증 지원: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AI·휴머노이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로보컵 등 국제대회와 연계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지원함.
- 물류 인프라 연계:인천국제공항 및 항만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물류로봇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함.

□ 인천시 산업 여건

- 대규모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청라국제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로봇랜드'를 2027년까지 조성 중이며, 로봇타워, R&D센터 등 핵심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
- 공공·민간 협력 및 행정지원: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민간(SPC)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 중임.
- 지속적 인프라 확장:2025년 기반시설 착공, 2028년 상반기 완공 등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 유치 및 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산업 집적 효과가 기대됨.

□ 사업 모델: '스마트 융합 로봇 솔루션 리더' 구축

핵심 타겟팅 분야		사업 모델
①	<b>글로벌 스마트 물류/모빌리티 로봇 솔루션 모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공항 및 항만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 물류/모빌리티 로봇 통합 테스트베드 및 실증 센터'를 구축하고, 물류 로봇, 자율주행 물류 차량, 드론 배송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함.</li> <li>• 물류, 로봇, 미래 모빌리티 기업과 R&amp;D 기관을 연결하는 산학연 플랫폼을 운영하여 다양한 실제 환경 기반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함.</li> </ul>
②	<b>산업 특화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 모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 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기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밀 제어 로봇, 협동 로봇, AI 기반 검사 로봇 등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보급에 집중함.</li> <li>•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R&amp;D와 표준화된 로봇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연계함.</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사업 모델
③ <b>로봇 기술 연구 및 사업화 지원 허브 모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로봇랜드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하여 로봇 기술 R&amp;D, 시제품 제작, 사업화, 투자 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허브를 구축하고 유망 로봇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집중함.</li> <li>• 초기 로봇 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국제 로봇 대회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li> </ul>

## VI

##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수립

## 1 바이오 산업

- 바이오 산업 투자유치 전략은 세계적 CDMO(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와의 공급망 연계 허브(송도 클러스터·남동공단 활용), LNG 냉열 기반 콜드체인 물류 클러스터(2026년 준공, 인천신항·영종권역) 및 R&D-임상-생산-유통 통합 생태계(K-바이오 랩허브·빅웨이브 펀드) 모델을 중심으로 API/중간체·소부장·CDMO 기업(글로벌·국내), 콜드체인·스마트 물류 전문 기업, 신약·유전자 치료제 스타트업·CRO를 타겟으로 하며, LQ 3.98 특화도·인력 비중 19.7% 부각, 세제 감면(15년 100% 지방세)·R&D·고용 보조금, 연 2,000명 인력 양성, 유타대 FDA 지원 등 유인을 강조하여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함.

## ①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생산 제조 및 공급망 연계 허브 활용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및 국내 API/중간체 제조업체</li> <li>바이오 소부장 기업</li> <li>CDMO 역량을 보유한 기업(예: SK바이오사이언스, 셀루메드, 차바이오텍).</li> <li>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바이오 분야와 기술적 연계가 가능한 기업</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적인 CDMO 기업과의 물리적, 공급망적 근접성 강조.</li> <li>높은 인천의 바이오 제약 산업 특화도(LQ 3.98) 및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비중(전국 대비 19.7%) 을 활용한 산업 생태계의 풍부함 부각.</li> <li>바이오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정책 등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R&amp;D 지원 정책 활용.</li> <li>경제자유구역(IFEZ) 입주 시 제공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및 보조금 지원 (입지, 시설,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특별 지원금 등). 첨단 기술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우대 혜택.</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및 남동공단 등 기존 제조 단지를 활용한 입지 지원</li> </ul>

## ② 바이오 특화 고부가가치 물류 및 글로벌 유통망 활용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콜드체인 물류 전문 기업</li> <li>바이오/의약품 특화 물류 서비스 제공 기업</li> <li>고부가가치 화물(반도체, 바이오 등) 운송/보관 전문 기업</li> <li>스마트/자동화 물류 시스템 개발 기업</li> </ul>

구분	투자유치 전략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2위 항공 화물 처리 능력 및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 등 압도적인 물류 인프라 활용 가능성 강조.</li> <li>• LNG 냉열 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 계획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 및 바이오의약품 보관/운송을 위한 특수 설비 보유 현황 부각.</li> <li>•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서의 전략적 지리적 이점 강조.</li> <li>• 물류 산업을 인천시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li> <li>• 경제자유구역 입주 시 물류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및 보조금 지원. 부산시 사례처럼 전략 산업 분야 투자 시 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 언급.</li> <li>• 바이오, 반도체 등 항공 물류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들이 인천 및 경기 남부에 대거 입지하여 잠재 물류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강조.</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신항 배후단지, 아암물류2단지, 영종권역. 제4경인고속도로 등 물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 계획 언급.</li> </ul>

### ③ 'R&D-임상-생산-유통' 연계 가속화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약 개발 기업,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li> <li>• 유전자/세포 치료제 기업</li> <li>• 첨단 바이오 기술 스타트업/벤처</li> <li>• 임상 연구 기관(CRO)</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생산-유통 연계가 가능한 통합 바이오 생태계 강조.</li> <li>• K-바이오 랩허브를 통한 창업기업 연구 공간, 장비 공유, 기술 컨설팅, 특허 지원, 비즈니스 멘토링 등 지원 프로그램 소개.</li> <li>• 인력 양성 센터를 통해 연간 2,000명 이상의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이 있어 인력 수급에 유리하다는 점 부각.</li> <li>• SK바이오사이언스 R&amp;PD 센터 등 대기업의 R&amp;D 시설 투자 현황 및 인천대학교 등 지역 연구 인프라 소개.</li> <li>• 유타대학교와의 협력과 같은 국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FDA 인허가 및 미국 시장 진출 지원 가능성 언급.</li> <li>• 혁신 펀드(빅웨이브) 등 초기 창업 기업 및 유망 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홍보.</li> <li>•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개발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혜택.</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지역. IFEZ를 R&amp;D 허브로 조성하려는 계획 활용.</li> </ul>

## 2 반도체 산업

-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 전략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R&D 허브(송도 융합연구소·남동 기술지원센터 활용), 후공정 생산·패키징 클러스터(영종 국가첨단단지·1,300개 기업 생태계), R&D-테스트-패키징-유통 통합 모델(소부장 육성·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I·IoT·자율주행 팹리스·R&D 기업, 글로벌 후공정·패키징 전문 기업, 소부장 공급망 기업을 타겟으로 하며, 2022년 수출 168억 달러(전체 27%) 경쟁력·대·중소 동반 정책 부각, IFEZ 세제 감면(15년 100% 지방세)·보조금(R&D·고용) 등 유인을 강조하여 '글로벌 첨단 패키징 메카'로 도약함.

### ① 첨단 시스템 반도체 R&D 및 설계 허브 활용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IoT 등 인천의 다른 핵심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팹리스) 및 연구 개발 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함.</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FEZ를 R&amp;D 허브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활용할 수 있음.</li> <li>정부 및 인천시의 반도체 전략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투자유인 제공함.</li> <li>반도체 R&amp;D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인력 수급 지원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음.</li> <li>경제자유구역 입주 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도와 남동산단로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함. IFEZ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정책을 활용함.</li> </ul>

### ② 고부가가치 후공정(OSAT) 및 소재/부품 집적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SAT 전문 기업 및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함. 특히 전기차와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와 연계된 분야를 강조할 수 있음.</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의 기존 제조 역량 및 반도체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함.</li> <li>인천시의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및 '반도체산업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사업'과 같은 정책 지원을 연계하여 홍보함.</li> <li>남동국가산업단지 등 기존 제조 기반을 활용한 입지 지원 및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보조금 등)를 제공함.</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제조 산업 기반인 부평, 주안, 남동공단 일대 및 이들과 연계된 송도 등의 산업 단지 구조를 활용함. 특히 송도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주요 입지로 활용함.</li> </ul>

## ③ 첨단 응용 분야 연계 반도체 솔루션 개발 허브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로봇용 반도체, IoT 반도체 등 특정 응용 분야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 기업(종합) 및 이와 관련된 R&amp;D 기업을 유치함.</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의 다양한 첨단 산업 생태계 및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산업 간 융합 및 시너지 창출 기회를 제공함.</li> <li>관련 응용 분야의 R&amp;D 및 실증 지원 인프라(K-Bio Labhub 확장 가능성, 로봇랜드 테스트베드,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등)를 활용할 수 있음.</li> <li>응용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인력 수급 지원을 제공함.</li> <li>정부의 첨단 산업 투자 유치 전략 및 지역 특화 프로젝트 선정과 연계한 재정적 지원을 활용함.</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도와 남동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연구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및 로봇랜드,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와의 기술적/물리적 연계가 용이한 지역을 활용함.</li> </ul>

## 3 물류 산업

- 물류 산업 투자유치 전략은 초고도화된 글로벌 인프라(세계 2위 항공 화물·인천 신항 활용), 스마트·자동화 시스템 집적(AI·로봇·디지털 트윈 개발 기업 타겟), 전략 산업 연계 특화 서비스(바이오·반도체 SCM·콜드체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인력 양성(3PL/4PL·교육 컨설팅) 모델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SCM·콜드체인·스마트 물류 스타트업을 유치하며, 동북아 지리적 이점·2,300억 원 스마트 물류 투자·IFEZ 세제 감면(15년 100% 지방세)·보조금 등 유인을 강조하여 바이오·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함.

## ① 초고도화된 글로벌 인프라 활용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가치 화물(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등)의 운송 및 처리에 특화된 글로벌 물류 기업.</li> <li>글로벌 공급망 관리(SCM) 서비스 전문 기업.</li> <li>냉동/냉장 운송 및 보관(콜드체인) 전문 기업.</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2위의 항공 화물 처리 능력을 가진 인천국제공항 보유.</li> <li>세계 60위권의 컨테이너 항만 역량. 대규모 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 계획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li> <li>항만 및 공항 배후단지 지속 개발 중.</li> <li>바이오, 반도체 등 항공물류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들의 인근 입지.</li> </ul>

구분	투자유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물류 거점으로서의 높은 잠재력.</li> <li>• 정부 및 지자체의 물류산업 전략적 육성 정책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li> <li>•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가능성.</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신항.</li> <li>• 송도 신항 배후단지 (대규모 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 예정).</li> <li>• 영종 권역 (항공물류단지 등).</li> <li>• IFEZ(송도, 영종, 청라 등) 지역.</li> <li>• 물류 거점 연계 체계가 구축된 지역.</li> </ul>

## ② 스마트 및 자동화 물류 시스템 집적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자동화 물류 장비 및 시스템 개발 기업.</li> <li>• 디지털 트윈 기술 보유 기업.</li> <li>• AI 및 로봇 자동화 솔루션 개발 기업.</li> <li>• 물류 창업 기업 및 스타트업 (ICT 기술 융합).</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의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 추진.</li> <li>• 물류 스타트업 육성 및 전담 지원 정책.</li> <li>• 물류와 ICT 기술 융합 스타트업의 활발한 성장세.</li> <li>•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 사업.</li> <li>• 물류 창업 공간 및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li> <li>• AI, 로봇 등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성 향상 기회.</li> <li>• 대형 프로젝트(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등) 중심의 투자 유치 예상.</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 신항 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등 첨단 기반 시설 구축 예정).</li> <li>• 인천국제공항.</li> <li>• 아암물류2단지.</li> <li>• 인천 로봇랜드, 인천 내 기존 산업단지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 전환 연계).</li> <li>• IFEZ 지역.</li> </ul>

## ③ 전략 산업 연계 특화 물류 서비스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 특화 보관/패키징 전문 물류 기업.</li> <li>• 반도체 산업 특화 운송 및 보관 기업.</li> <li>• 드론 배송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기업.</li> <li>• 특정 산업 (바이오, 반도체,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물류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핵심 전략 산업(바이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과의 직접적인 연계 기회.</li> <li>• 수요 산업 기반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물류 시장 창출 가능성.</li> <li>• 인천의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및 클러스터 조성 노력.</li> <li>• 바이오,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수출품 제조업체들의 대거 입지.</li> </ul>

구분	투자유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을 활용한 물류 운송 및 스마트 물류 시너지 가능성.</li> <li>• 섬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 추진.</li> <li>• 정부 및 지자체의 전략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지원.</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 클러스터(송도, 영종, 남동공단) 인근.</li> <li>• 반도체 산업 집적 지역.</li> <li>• 드론 및 UAM 실증에 유리한 다양한 지형 조건의 지역 (섬, 해안, 도심, 공항 인근).</li> <li>• 산업단지 및 항만/공항 배후 물류 단지.</li> <li>• IFEZ 지역.</li> </ul>

#### ④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및 인력 양성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가공, 3PL/4PL) 제공 기업.</li> <li>•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류 전문 기업.</li> <li>• 물류 자동화 및 스마트 기술 교육/컨설팅 기업.</li> <li>• 물류 관련 인력 양성 기관 및 기업.</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 증대 기회.</li> <li>•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관련 물류 수요 확대.</li> <li>• 항만 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활동(포장, 조립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li> <li>• 물류 자동화 및 스마트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지원.</li> <li>• 인력 부족 문제 완화를 통한 기업 운영 안정성 증대.</li> <li>• 정부 및 지자체의 물류 산업 지원 정책 및 디지털 전환 지원.</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배후단지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li> <li>• 전자상거래 복합물류센터 구축 지역 (아암물류2단지 등).</li> <li>• 물류 시설 및 테스트베드 구축 지역. 물류 전문 인력 양성 관련 교육 기관 연계 지역.</li> <li>• IFEZ 지역.</li> </ul>

## 4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투자유치 전략은 초고도화된 글로벌 MRO 및 항공물류 연계 (영종 국제도시·인천공항 첨단단지 활용), UAM·드론 신규 서비스 실증 허브(국가 드론 시험장·영종도 다양한 지형),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물류·시티 연계(송도 스마트 시티·시범지구), 첨단 기술 R&D 및 인력 양성(로봇랜드·강소특구·대학 연계) 모델을 중심으로 MRO·UAM·드론·자율주행 전문 기업(대한항공·IAI·현대차·SKT 등)을 타겟으

로 하며, 정부 육성 정책·실증 인프라·시너지 기회·인력 양성 프로그램 부각, IFEZ 세제 감면·보조금 등 유인을 강조하여 동북아 첨단 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함.

## ① 초고도화된 글로벌 MRO 및 항공물류 연계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항공기 MRO 전문 기업.</li> <li>• UAM 기체 등 차세대 항공기 정비 기술 기업.</li> <li>• 고부가가치 항공 부품 제조 및 수리 기업.</li> <li>• 항공 MRO 부품 물류 전문 기업.</li> <li>• 국내외 항공 산업 앵커 기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IAI, 아틀라스항공).</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2위의 항공 화물 처리 능력을 가진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연계 항공 MRO 단지 조성 계획이 진행 중임.</li> <li>•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 영종도 이전 등 대규모 투자 유치 경험이 있음.</li> <li>• 이스라엘 IAI, 미국 아틀라스항공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 경험이 있음.</li> <li>• 기존 항공 산업 및 MRO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li> <li>• 기존 제조업 기반을 항공 부품 공급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li> <li>• 정부 및 지자체의 항공 MRO 산업 육성 정책 및 클러스터 지정 지원.</li> <li>• 인하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MRO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 중임.</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 및 그 배후 지역인 영종 국제도시를 핵심적으로 활용함.</li> <li>•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계획 지역을 활용함.</li> <li>• MRO 클러스터 지정 및 개발 지역을 활용함.</li> <li>• 항공 물류 인프라 연계성이 뛰어난 IFEZ 지역을 활용함.</li> <li>• 기존 제조업 단지와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도 활용함.</li> </ul>

## ② UAM 및 드론 기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허브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M 기체 및 시스템 개발 기업. 드론 제조 및 서비스 운영 기업.</li> <li>• 도심 항공 및 드론 배송 서비스 개발 기업.</li> <li>• UAM 및 드론 관련 기술 (AI, 통신, 센서 등) 기업(스카이웍스, 모비우스 에너지, 현대차, KAI, 한화시스템, SKT 등).</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8개의 섬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 조건이 UAM 및 드론 실증에 유리함을 강조함.</li> <li>• 국토부 지정 국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및 인증센터가 유치되어 있음.</li> <li>•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드론을 활용한 물류 운송 및 스마트 물류 시너지 가능성이 큼.</li> <li>• 인천 7개 섬 지역에서의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임.</li> <li>• 정부의 UAM 상용화 로드맵 및 드론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li> <li>•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 개척 및 서비스 다각화 기회를 제공함.</li> </ul>

구분	투자유치 전략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M 실증 및 상용화에 유리한 섬, 해안, 도심 등 다양한 지형 조건의 지역을 활용함.</li> <li>• 수도권매립지에 위치한 국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및 인증센터를 활용함.</li> <li>• 공항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지형을 가진 영종도를 활용함.</li> <li>• UAM 버티포트 구축 계획 지역을 활용할 수 있음.</li> <li>• 산업단지 및 항만/공항 배후 물류 단지를 드론/자율주행 물류 실증 장소로 활용함.</li> <li>• 송도 스마트시티와의 연계를 통해 도심 서비스 실증도 추진함.</li> </ul>

### ③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물류 및 스마트 시티 연계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주행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기업.</li> <li>•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업.</li> <li>• 스마트 시티 연계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기업.</li> <li>• 자율주행 핵심 부품/기술 (센서, 소프트웨어, V2X 등) 기업(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하나마이크론, 텔레칩스 등)</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 스마트시티의 첨단 인프라 및 실증 환경을 제공함.</li> <li>• 국내 최초의 LTE-V2X 통신 기술 실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li> <li>•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지정이 되어 있음.</li> <li>• 스마트 물류 및 자동화 물류 시스템 모델과의 강력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됨.</li> <li>• 정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정책과 연계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음.</li> <li>• 교통 체증 완화 및 이동 효율성 증대 등 도심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및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있음</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 국제도시 (스마트시티 인프라, 첨단 실증 인프라)를 핵심적으로 활용</li> <li>•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송도,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도)를 활용함.</li> <li>• 인천 신항 배후 물류 단지 등 항만 배후 지역을 자율주행 물류 실증 거점으로 활용함.</li> <li>• 남동, 부평, 주안 등 기존 산업단지를 자율주행 기반 생산 물류에 연계 활용함.</li> <li>• IFEZ 내 R&amp;D 및 테스트에 적합한 지역을 활용함.</li> </ul>

### ④ 첨단 모빌리티 기술 R&D 및 전문 인력 양성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 기술(AI, 센서, 소프트웨어, 자동화 등) R&amp;D 기업.</li> <li>• 미래 모빌리티 관련 R&amp;D 센터.</li> <li>•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융합 기술 개발 기업.</li> <li>• 모빌리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및 기업.</li> <li>• 지역 대학 및 연구 기관.</li> </ul>

구분	투자유치 전략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지자체의 모빌리티 분야 R&amp;D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이 강력함을 강조함.</li> <li>• 인천 로봇랜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기존 및 계획 중인 R&amp;D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li> <li>• 바이오, 반도체, 물류, 로봇 등 인천의 다른 전략 산업과의 기술 융합 R&amp;D 기회를 제공함.</li> <li>• 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과 연계한 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지원함.</li> <li>•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함.</li> <li>•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기업에게 해결책을 제시함을 강조함.</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EZ 내 R&amp;D 클러스터 조성 지역 (송도, 영종, 청라 등)을 활용함.</li> <li>• 인천 로봇랜드 R&amp;D 센터 및 테스트베드를 활용함.</li> <li>•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활용함.</li> <li>•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주변 지역을 활용함.</li> <li>• K-바이오 랩허브와 같은 성공적인 R&amp;D 허브 모델과의 연계도 고려함.</li> </ul>

## 5 관광 산업

- 관광 산업 투자유치 전략은 MICE·컨벤션 허브(송도컨벤시아·공항 연계), K-콘텐츠 문화 관광(청라 영상단지·송도 K-POP), 웰니스·헬스케어 특화(을왕리·강화도 치유 자원), 복합리조트 개발(영종·옹진 특구) 모델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벤션·콘텐츠·헬스케어·리조트 기업을 타겟으로 하며, 2025년 1,873만 명 방문객·웰니스 25개소 부각, IFEZ 세제 감면(15년 100% 지방세)·보조금·규제 완화 등 유인을 강조하여 서울 연계 글로벌 관광 허브로 도약함.

### ① 글로벌 허브 공항 및 MICE 관광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고급 호텔 및 리조트 운영 기업. 대규모 컨벤션 및 전시 시설 운영 전문 기업.</li> <li>• 국제회의 기획 전문 기업. 크루즈 선사.</li> <li>• 면세점 운영 기업. 공항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고 수준의 여객 처리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함.</li> <li>• 공항 환승객을 위한 스톱오버 관광 수요 창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li> <li>•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의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를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함.</li> <li>• 서울 등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통해 잠재 관광객 흡수 여력이 충분함을 어필함.</li> </ul>

구분	투자유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복합리조트(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시티 등)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됨.</li> <li>풍부한 국제 노선 기반으로 국제회의 및 전시 산업 육성에 유리함을 강조함.</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 및 그 배후 지역인 영종 국제도시 IFEZ를 핵심적으로 활용함.</li> <li>영종 지역의 복합리조트 조성 지역 및 계획 지역을 활용함.</li> <li>MICE 시설 구축 및 운영에 적합한 IFEZ 내 국제업무지구 등을 활용함.</li> <li>공항과 연계된 물류 및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관광과 연계 가능함을 제시함.</li> </ul>

## ② 다채로운 해양·섬 테마 관광 특화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섬 테마 리조트 및 숙박 시설 개발/운영 기업.</li> <li>웰니스 및 의료 관광 전문 기업.</li> <li>생태 관광 및 레저 스포츠 시설 운영 기업.</li> <li>해양 관광 시설 운영 및 장비 대여 기업.</li> <li>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과 가장 근접한 해양 관광지로서 뛰어난 접근성 보유를 강조함.</li> <li>해안과 섬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함.</li> <li>개발 잠재력이 높은 강화도, 석모도 등 활용 가능한 관광 자원 제시함.</li> <li>계획 중인 강화 남단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및 영종 용유 복합 해양 레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가능성 제시함.</li> <li>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을 제시함.</li> <li>섬 지역 미래 모빌리티 실증 등 기술 접목을 통한 서비스 혁신 가능성을 어필함.</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화군 및 옹진군 일대 섬 지역 (특히 강화 남단 지역), 영종 용유 지역.</li> <li>자연 자원(해안, 섬, 산)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활용함.</li> <li>기회발전특구 지정 검토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함.</li> </ul>

## ③ K-콘텐츠 및 한류 융합 관광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콘텐츠 제작 및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업.</li> <li>한류 테마 관광 상품 기획/판매 전문 여행사.</li> <li>디지털 콘텐츠 및 미디어 아트 기술 기업.</li> <li>이벤트 및 공연 기획사.</li> <li>K-콘텐츠 관련 IP 활용 사업 기업.</li> <li>복합 문화/쇼핑 시설 운영 기업 (스타필드 등).</li> </ul>

구분	투자유치 전략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함.</li> <li>• 한국 정부 및 인천시의 K-콘텐츠 산업 육성 및 관련 관광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제시함.</li> <li>• 송도 K-Pop 인프라, 청라 영상 복합단지 등 계획/조성 중인 K-콘텐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li> <li>• 스타필드 청라, 복합리조트 등 대규모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 개발 및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어필함.</li> <li>•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스마트 관광으로의 혁신 기회가 있음을 제시함.</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 국제도시 IFEZ (K-Pop 인프라, 국제업무지구).</li> <li>• 청라 국제도시 IFEZ (영상 복합단지, 스타필드).</li> <li>• 내항 재개발, 한상 드림아일랜드, 용유 노을빛타운 등 계획 중인 대규모 문화/관광 시설 연계 지역을 활용함.</li> <li>• 미디어 아트 활용 등 야간 경관 고도화에 유리한 지역을 활용함.</li> </ul>

#### ④ 전략 산업 연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관광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물류 시설 운영 기업 (스마트 물류 센터, 콜드체인 전문).</li> <li>•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li> <li>• 반도체 제조 및 후공정 기업.</li> <li>• 기타 전략 산업 분야의 제조 기업.</li> <li>• 비즈니스 및 산업 관광 전문 여행사.</li> <li>• 물류 기술 및 자동화 솔루션 기업.</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이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항공 화물 세계 2위) 및 항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물류 거점으로서의 위상이 높음을 강조함.</li> <li>• 바이오, 반도체 등 항공 물류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 제조업체가 대거 입지하고 있어 산업 관광 및 연계 물류 서비스 수요가 있음을 제시함.</li> <li>• 스마트 물류 센터, 콜드체인 클러스터 등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 현장 방문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줌.</li> <li>•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비즈니스 기회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기업인/전문가 등 비즈니스 관광 수요를 유치할 수 있음을 어필함. 물류 및 산업 현장의 자동화, AI 등 기술 혁신과 연계하여 체험 요소를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함.</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주요 산업 클러스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남동국가산단, 반도체 관련 지역), 주요 물류 인프라 거점을 활용함.</li> <li>• CJ대한통운 인천 GDC, 로지스밸리 인천 아암물류2단지 등 첨단 물류 시설을 활용함.</li> <li>• 산업단지 및 항만/공항 배후 지역을 산업 관광 및 특수 물류 서비스 실증 장소로 활용함.</li> </ul>

## 6 수소 산업

- 수소 산업 투자유치 전략은 글로벌 물류/모빌리티 연계 인프라 강화(스마트 센터·콜드체인 활용), 그린 수소 생산·R&D 클러스터(바이오 부생 470MW 목표), 에너지 활용·수출 허브(액화수소생산플랜트·충전소 인프라) 모델을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연료·전자·생산·트레이딩 기업을 타겟으로 하며,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플랜트·700대 버스 전환 부각, 수소융복합단지·미래에너지 포럼 지원, IFEZ 세제 감면(15년 100% 지방세)·R&D·고용 보조금 등 유인을 강조하여 동북아 청정수소 허브로 도약함.

### ① 글로벌 물류/모빌리티 연계 수소 인프라 모델 강화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수소 생산 및 공급 전문 글로벌 기업.</li> <li>• 수소 모빌리티(차량, 선박, 항공기) 제조 및 운영 기업.</li> <li>•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기업.</li> <li>• 수소 산업 관련 소부장 제조 기업.</li> <li>• 수소 모빌리티 수출입 및 유통에 특화된 물류 기업을 타겟으로 함.</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화물 처리 세계 2위) 및 항만 인프라를 보유하여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이 높음을 강조함.</li> <li>•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수소 모빌리티의 국내외 접근성 어필.</li> <li>•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소 산업 육성 정책과 재정적 지원 제시함.</li> <li>• 공공 부문의 수소 모빌리티 전환 계획을 통해 초기 시장 수요 확보 제시.</li> <li>•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에서의 투자 인센티브 및 저비용 공간 제공 가능성을 제시함.</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신항, 그리고 이들 배후 지역을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충전 및 수소 모빌리티 수출입 거점으로 활용함.</li> <li>• 수소 충전소 구축에 적합한 주요 물류 거점 및 도로망 인근 지역을 활용</li> <li>• 영종 국제도시 등 공항경제권 내 수소 모빌리티(UAM, 항공기) 관련 인프라 구축 지역을 활용함을 포함함.</li> <li>•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저비용 사무/생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함.</li> </ul>

### ② 탄소 포집 연계 청정 수소 생산 및 산업 공급 허브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 보유 및 운영 기업.</li> <li>•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 설비 구축 및 운영 기업.</li> <li>• 산업용 가스 제조 및 공급 기업.</li> <li>• 석유화학 및 철강 등 탄소 배출 산업체 (CCU 적용).</li> <li>• 바이오, 반도체 등 청정/안정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체.</li> <li>• 녹색 금융 및 관련 국제 투자 기관.</li> </ul>

구분	투자유치 전략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기존 중화학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음을 제시함.</li> <li>• 인근 산업단지 및 첨단 산업 클러스터(바이오, 반도체 등)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줌.</li> <li>• 정부 및 지자체의 강력한 기후테크 및 수소 산업 육성 정책과 대규모 투자 계획(총 174.4조 원)을 강조함.</li> <li>• GCF 및 CNCA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녹색 금융 유치 및 국제 파트너십 구축이 용이함을 어필함.</li> <li>• 기후테크 맞춤형 산단 조성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투자 유치에 유리한 인프라 및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제시함.</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동 국가 산업단지, 서부산업단지 등 탄소 다배출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CCU 연계 수소 생산 기지 및 산업 공급 거점으로 활용함.</li> <li>•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및 반도체 관련 지역을 청정 수소 공급 대상 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함을 포함함.</li> <li>•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및 관련 R&amp;D 시설 부지로 적합한 지역을 활용</li> <li>•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후테크 기업 집적화 부지를 활용함.</li> </ul>

### ③ 스마트시티 및 테마별 특화 수소 응용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 연료전지 제조 및 설치 기업.</li> <li>• 스마트시티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솔루션 제공 기업.</li> <li>• 테마별 특화 시설(해양치유센터, 친환경 리조트 등) 개발 및 운영 기업.</li> <li>• 에너지 자립형 건물/산업단지 설계 및 구축 전문 기업.</li> <li>• 관광 산업과 에너지 솔루션을 융합하고자 하는 기업을 타겟으로 함.</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의 적극적인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 및 관련 인프라 조성을 활용할 수 있음을 어필함.</li> <li>• 해양치유, 웰니스, 친환경 관광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와 연계하여 수소 에너지의 차별화된 응용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을 제시함.</li> <li>• 에너지 자립형 모델 개발을 통해 운영 비용 절감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가 가능함을 보여줌.</li> <li>• 정부 및 지자체의 수소 산업 및 관광 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함.</li> <li>• IFEZ 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를 활용 가능성을 설명함.</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 국제도시 IFEZ 내 스마트시티 개발 지역을 스마트 빌딩/산업단지 연계 모델 구축 및 실증 거점으로 활용함.</li> <li>• 강화군 및 옹진군 일대 섬 지역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검토 지역) 및 해양치유 시설 예정지를 친환경 관광 연계 모델 구축 장소로 활용함.</li> <li>• 기존 산업단지 및 신규 개발 예정 산업단지를 에너지 자립형 모델 실증 지역으로 활용함을 포함함.</li> <li>• IFEZ 내 관광/레저 관련 시설 조성 지역을 활용함.</li> </ul>

## ④ 미래 수소 기술 R&amp;D, 테스트베드 및 전문 인력 양성 허브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 기술 R&amp;D 전문 기업 및 연구소.</li> <li>차세대 수소 기술(수전해, 연료전지, 안전 등) 개발 스타트업, 벤처 기업.</li> <li>수소 산업과 연계 가능한 첨단 기술(AI, 소재, 자동화 등) 기업.</li> <li>산학연 협력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원하는 기업.</li> <li>수소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소 산업 R&amp;D, 인력 양성 지원 정책 강조함.</li> <li>강소연구개발특구, 로봇랜드 등 미래 기술 R&amp;D 및 실증을 위한 인프라 활용 및 저비용 공간 제공 가능성을 제시함.</li> <li>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기회를 제공함.</li> <li>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함을 어필함.</li> <li>IFEZ 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활용 가능성을 설명함.</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을 R&amp;D, 실증, 기업 집적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함.</li> <li>인천 로봇랜드의 테스트베드 및 연구 시설을 수소 기술 실증 및 융합 연구에 활용함을 포함함.</li> <li>K-바이오 랩허브(송도) 등 기존 산업 클러스터의 R&amp;D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 융합형 수소 기술 연구를 지원함.</li> <li>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캠퍼스를 인력 양성 및 기초/원천 기술 연구 공간으로 활용함.</li> </ul>

## 7 기후테크

- 기후테크 산업 투자유치 전략은 탄소 포집 산업 연계 강화(남동 국가·송도 클러스터 활용),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화(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스마트 환경 관리·기후 적응(모니터링·예측 기술), 미래 R&D·실증 지원 허브(강소특구·테스트베드) 모델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선도·재생에너지·환경 기술·스타트업·GCF 회원 기관을 타겟으로 하며, 정부 투자·GCF 국제 협력·사회적 가치 창출 부각, IFEZ 세제 감면·보조금 등을 강조하여 글로벌 녹색 금융·R&D 허브로 도약함.

## ① 탄소 포집 및 활용(CCU) 모델의 산업 연계 강화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산업 기업 (CCU 기술 적용 대상)을 포함</li> <li>CCU 기술 개발 및 운영 기업이 주요 타겟임.</li> <li>수소 생산, 유통, 활용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함.</li> <li>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클러스터 내 수소 에너지 수요 기업.</li> <li>국제 협력을 위한 해외 에너지 기업을 유치함.</li> </ul>

구분	투자유치 전략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수소 생산·공급망 및 CCU 계획과의 강력한 연계 사업 기회 제공.</li> <li>•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처 확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li> <l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처와의 연계 가능성</li> <li>• GCF, CNCA 등 국제 기구 및 해외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li> <li>• GCF 연계를 통한 국제 녹색 금융 유치 가능성 제시.</li> <li>• 통합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li> <li>• 정부 및 지자체의 수소 및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과 재정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탄소 다배출 산업단지 인근을 CCU 시설의 주요 입지로 활용함.</li> <li>• 생산된 수소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남동공단, 서부산업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함.</li> <li>• 첨단 산업 수요처인 송도 (바이오), 영종 (반도체) 등 클러스터를 활용함.</li> <li>•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저비용 사무 및 생산 공간을 제공함.</li> <li>• GCF 연계 및 국제 협력을 위해 송도 국제업무지구를 활용함.</li> <li>• 기술 개발 및 협력을 위해 인천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 연계 가능한 부지를 활용함.</li> </ul>

## ② 녹색 금융 플랫폼의 전략 산업 투자 유치 연계 강화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테크 선도 기업.</li> <li>• 탄소 포집 및 활용,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환경 기술 서비스 등 기후테크 관련 기술 기업.</li> <li>• GCF, CNCA 회원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을 강화함.</li> <li>• 친환경 항만/공항 물류 시스템 관련 기업.</li> <li>•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관련 기업.</li> <li>•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업 및 스마트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업.</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CF, CNCA 등 국제 기구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홍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li> <li>• 인천의 8대 핵심 전략 산업 분야와의 연계 투자 기회를 통해 사업 확장성을 높일 수 있음.</li> <li>• 프로젝트 기반 컨소시엄 참여 및 공동 투자 기회를 통해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li> <li>• 맞춤형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 초기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li> <li>• 인천의 2045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 및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장 수요를 기대할 수 있음.</li> <li>• 수익 창출형 산단 조성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제시함.</li> </ul>

구분	투자유치 전략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CF 연계 및 국제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송도 국제업무지구를 핵심 입지로 활용함.</li> <li>강소연구개발특구 및 기타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기후테크 기업의 집적화를 지원함.</li> <li>인천의 8대 전략 산업 클러스터 (송도 바이오/반도체, 영종 반도체/MRO/관광, 청라 로봇/모빌리티, 남동 소부장 등)와 연계된 부지를 활용하여 투자 기회를 제공함.</li> <li>수익 창출형 산업단지 조성 부지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 모델을 제시함.</li> </ul>

### ③ 스마트 환경 관리 및 기후 적응 솔루션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시티 솔루션 기업이 주요 타겟 기업임.</li> <li>AI, 빅데이터, IoT 기술 기반 환경 관리 및 재난 예측 시스템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함.</li> <li>에너지 효율 관리 솔루션 기업 및 스마트 빌딩/산업단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업이 해당됨.</li> <li>폐기물 관리 및 순환 경제 기술 기업을 유치함.</li> <li>탄소 흡수원 관련 기술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함.</li> <li>해양 및 기후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 제공 기업을 포함함.</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시의 명확한 지역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시장 확보가 용이함.</li> <li>스마트 시티 인프라 및 기술과의 융합 기회를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가 가능함.</li> <li>기후 변화 관련 자연 재해 증가에 따른 솔루션 필요성 증대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음.</li> <li>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활용함.</li> <li>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 투자(SRI)를 유치할 수 있음.</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시티 조성 지역 (송도 등)을 실증 및 사업 모델 적용 핵심 입지로 활용함.</li> <li>강소연구개발특구 내 R&amp;D 및 실증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지원함.</li> <li>인천의 해안 및 섬 지역을 환경 관리 및 기후 적응 솔루션 실증 및 적용 특화 입지로 활용함.</li> <li>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지역을 폐기물 관련 기술 개발 및 적용 장소로 활용</li> <li>지역 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추진함.</li> </ul>

## ④ 미래 기후테크 R&amp;D 및 실증 지원 허브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테크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이 주요 타겟 기업임.</li> <li>차세대 CCUS, 고효율 재생에너지,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친환경 소재, 기후 변화 예측/적응 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 기술 기업을 유치함.</li> <li>기후테크 관련 분야 연구소 및 대학을 유치 및 협력함.</li> <li>GCF, CNCA 회원 기관 및 기업 (국제 R&amp;D 협력 대상)이 해당됨.</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기존 및 계획 중인 강력한 R&amp;D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li> <li>미래 유망 기후테크 분야에 특화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지원을 통해 기술 검증 및 상용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li> <li>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음.</li> <li>정부 및 지자체의 강력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과 재정 지원을 활용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li> <li>GCF, CNCA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 및 글로벌 진출 기회를 통해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음.</li> <li>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행정 및 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핵심 R&amp;D 및 실증 허브 입지로 활용함.</li> <li>인천 로봇랜드 및 K-바이오 랩허브를 테스트베드 연계 및 융합 기술 개발 거점으로 활용함.</li> <li>인천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산학연 협력 및 인력 양성 거점으로 활용함.</li> <li>검단2일반산단 등 산업단지를 활용 R&amp;D 성과 기반 기업 집적화 지원함.</li> <li>GCF 연계를 위한 송도 국제업무지구를 활용하여 국제 공동 연구 및 글로벌 투자 유치를 지원함.</li> </ul>

## 8 로봇 산업

- 로봇 산업 투자유치 전략은 첨단 R&D·제조 클러스터(인천로봇랜드·2026 로보컵 활용), 스마트 시티·물류 연계 서비스(송도 스마트시티·자율주행 시범지구), R&D-테스트-제조-유통 통합(산학연 협력·인재 양성) 모델을 중심으로 AI·휴머노이드·산업용·서비스 로봇 개발·제조·솔루션 기업을 타겟으로 하며, 8,988억 원 국가 사업·로봇 스타기업 육성 부각, IFEZ 세제 감면(15년 100% 지방세)·보조금(R&D·고용) 등 유인을 강조하여 국내 최대 로봇 허브로 도약함.

## ① 글로벌 스마트 물류/모빌리티 로봇 솔루션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물류 자동화 기업, 물류 로봇/시스템 개발 기업을 타겟함.</li> <li>자율주행/드론/UAM 기술 기업을 타겟함.</li> <li>콜드체인 물류 기업 및 글로벌 물류/모빌리티 선도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함.</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실제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기술 실증 및 상용화를 지원함.</li> <li>플랫폼 및 공동 연구 개발 과제 참여를 통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li> <li>테스트베드/실증 시설 사용료, 플랫폼 멤버십 비용, 공동 연구 개발 과제 수주, 데이터 기반 솔루션 수익 공유, 국제 인증/표준화 지원 수수료 등의 수익 구조가 예상됨.</li> <li>인천의 세계적 규모의 물류 인프라(인천국제공항, 인천항)를 활용하여 물류 로봇 및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활용할 수 있음.</li> <li>인천 로봇랜드 조성을 통해 R&amp;D 센터, 테스트베드 등 집적 인프라를 제공 받을 수 있음.</li> <li>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에 따른 규제 완화 및 세제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이 있음.</li> <li>정부의 강력한 로봇 산업 육성 정책과 실증 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음.</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로봇랜드 내 R&amp;D 센터 및 테스트베드를 활용함.</li> <li>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신항 배후단지, 산업단지, 도심 등 인천 전역의 실제 환경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함.</li> <li>콜드체인 클러스터와 연계된 테스트베드를 활용함.</li> <li>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를 활용함.</li> </ul>

## ② 산업 특화 지능형 자동화 솔루션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 생산/R&amp;D 기업, 반도체 제조 기업, 기타 제조업체를 타겟함.</li> <li>산업용 로봇/자동화 설비 기업을 타겟함.</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 맞춤형 R&amp;D 지원으로 산업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솔루션 개발 가능.</li> <li>각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된 로봇 솔루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함.</li> <li>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로봇 운영 및 유지보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됨.</li> <li>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수수료, 표준 모듈 라이선스 비용, 정부/지자체 보조금 활용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비 등의 수익 구조가 예상됨.</li> <li>인천의 기존 제조업 인프라 및 지역 내 자동화 기업 존재를 활용함.</li> <li>바이오, 반도체 등 인천의 전략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기회 활용.</li> </ul>

구분	투자유치 전략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바이오 랩허브와 연계하여 바이오 공정 자동화 연구/생산에 활용함.</li> <li>• 반도체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한 현장 적용에 활용함.</li> <li>• 기타 제조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 지원에 활용함.</li> <li>• 인천의 기존 제조 산업 단지(부평, 주안, 남동 등)와 연계하여 후공정 OSAT 및 소부장 기업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에 활용함.</li> </ul>

### ③ 로봇 기술 연구 및 사업화 지원 허브 모델

구분	투자유치 전략
타겟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을 타겟함.</li> <li>• 대학 및 연구 기관, 국내외 VC를 타겟함.</li> </ul>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부터 사업화, 투자 유치까지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음.</li> <li>• 초기 로봇 기술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전용 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VC 네트워킹을 강화함.</li> <li>• 국제 로봇 대회 유치/개최 지원, 해외 로봇 선도 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투자 유치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국제 협력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li> <li>• 펀드 운영 수익(지분 투자), 공간 임대료(저비용), 기술 이전 수수료 공유, 컨설팅/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수수료 등의 수익 구조가 예상됨.</li> <li>• 인천 로봇랜드의 R&amp;D 센터, 테스트베드 등 집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li> <li>•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저비용 사무/생산 공간 제공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음.</li> <li>• 정부의 로봇 산업 R&amp;D 및 인력 양성 지원 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li> </ul>
입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로봇랜드 (R&amp;D 센터, 테스트베드)를 기술 연구 및 실증 공간으로 활용</li> <li>•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로봇 기술 연구 및 사업화 지원 공간으로 활용함.</li> <li>• 지역 내 대학 및 연구 기관을 R&amp;D 및 인력 양성 협력 공간으로 활용함.</li> <li>• K-바이오 랩허브와 같은 기존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에 활용함.</li> </ul>

## Ⅵ

# 투자유치 타겟기업 발굴

## 1 타겟기업 발굴 방법론

### □ 타겟기업 발굴 방법론

#### ○ 1단계: 산업별 세부 업종 식별 및 기업 목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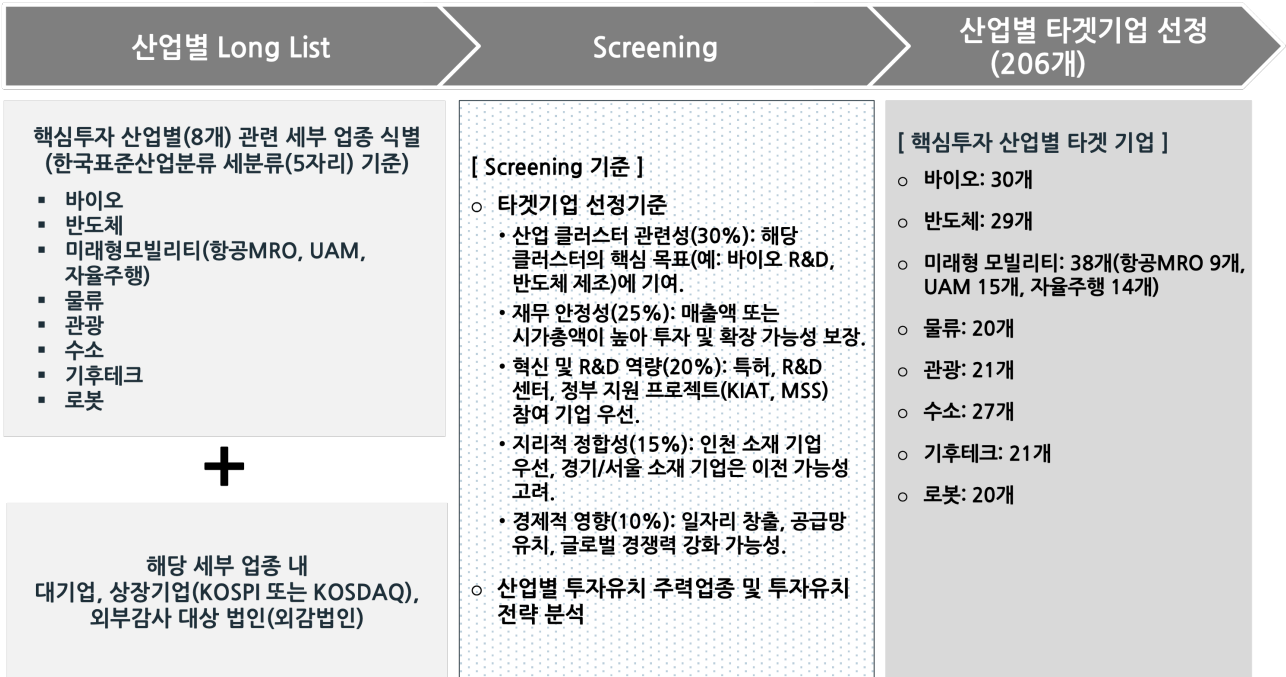
- 8개 핵심 투자 산업(바이오,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세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식별함.
- 이후 해당 세부 업종에 속하는 기업 중 대기업,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그리고 외부감사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초기 기업 목록(Long List)을 작성함.

#### ○ 2단계: 스크리닝을 통한 유망 타겟기업 선정

- 작성된 초기 목록을 바탕으로 5가지 핵심 기준을 적용하여 유망 타겟기업을 선별함.
- 평가 기준은 산업 클러스터와의 관련성(30%),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으로 평가하는 재무 안정성(25%), 특허 및 R&D 역량(20%), 인천 및 수도권 소재 여부 등 지리적 정합성(15%),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영향(10%)으로 구성됨.

#### ○ 3단계: 최종 타겟기업 리스트 확정

- 스크리닝 과정을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천시의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과 부합하는지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8개 산업에 걸쳐 총 206개의 핵심 타겟기업을 선정함.
- 산업별로는 바이오 30개, 반도체 29개, 미래형 모빌리티 38개, 물류 20개, 관광 21개, 수소 27개, 기후테크 21개, 로봇 20개 기업이 포함됨.



## 2 사업모델별 타겟기업 및 선정 이유

### □ 바이오 산업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p>①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제조 연계 모델 수준의 생산 및 공급망 허브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바이오사이언스(주):백신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과 송도 R&amp;PD 센터 구축 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의 생산 허브 모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주)대웅제약: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개발 및 CMO/CDMO 사업 확장으로 인천의 생산 및 공급망 연계 모델에 적합함.</li> <li>• 대웅바이오(주):미생물 기반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 능력과 글로벌 CMO/CDMO 사업 확장으로 그룹 내 생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음.</li> <li>• (주)유한화학:원료의약품(API) 및 중간체 생산에 특화되어 있으며,대규모 CDMO 생산시설 가동 계획으로 공급망 연계 모델에 적합함.</li> <li>• 메디포스트(주):세포·유전자치료제(CGT) CDMO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첨단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li> <li>• (주)차바이오텍:글로벌 CGT CDMO 사업을 핵심으로 삼고 5개국에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인천의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li> <li>• 동방에프티엘(주):표적 단백질 분해(TPD) 신약의 원료 및 중간체 대량 생산 공정 개발에 성공하여 관련 CMO/CDMO 서비스를 제공함.</li> <li>• (주)한서켄:원료의약품(API) 및 중간체 제조에 특화된 기업으로,국내외 제약사에 맞춤형 생산을 지원함.</li> <li>• 코스맥스파마(주):다양한 제형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ODM/OEM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아이티켄:원료의약품(API) 및 중간체 생산에 특화된 CMO/CDMO 전문 기업</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p>② <b>바이오 특화 고부가가치 글로벌 물류유통망 및 활용 모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바이오사이언스(주):글로벌 백신 공급 기반을 확보하여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의 글로벌 물류 수요가 높음.</li> <li>• (주)대웅제약:자체 개발 신약을 4개 대륙에 진출시키는 등 글로벌 유통망 활용이 중요함.</li> <li>• 대웅바이오(주):API 및 완제의약품의 대량 생산과 수출을 주력으로 하여 글로벌 물류 역량이 필수적임.</li> <li>• (주)알테오젠:글로벌 제약사에 대규모 기술 수출 및 상업화를 추진하며 국제 유통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li> <li>• 에이비엘바이오(주):글로벌 빅파마와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국제 물류 네트워크가 중요함.</li> <li>• (주)유한화학:글로벌 제약사를 고객으로 원료의약품을 생산 및 수출하여 고부가가치 물류 수요가 높음.</li> <li>• 메디포스트(주):줄기세포치료제의 국내외 임상 및 상업화를 추진하며 북미 CDMO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물류 연계가 필요함.</li> <li>• (주)차바이오텍:글로벌 CGT CDMO 사업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 국제적인 생산 및 물류 역량이 중요함.</li> <li>• (주)바이오니아:분자진단 시스템 및 키트를 해외에 공급하며 글로벌 유통망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li> <li>• (주)엔지켐생명과학:국내외에 원료의약품(API)을 공급하며 국제기구로부터 원료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물류 관련성이 높음.</li> <li>• (주)랩지노믹스:미국 시장 진출 및 글로벌 수탁 분석 서비스를 확장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진단 키트를 공급하고 있음.</li> <li>• (주)테라젠바이오:유전체 분석 기술을 해외 40개국 이상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물류 및 유통이 중요함.</li> <li>• (주)바이오오케스트라:뇌 질환 치료제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 이전하고 미국 FDA 임상을 목표로 해 국제 물류와 관련이 있음.</li> <li>•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생명공학 시약 및 기자재 수출,글로벌 기술 이전 및 임상을 추진하여 국제 물류 역량이 중요함.</li> <li>• (주)한서켐:원료의약품 및 중간체를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며 맞춤형 화합물을 공급해 글로벌 물류와 관련이 깊음.</li> <li>• 코스맥스파마(주):ODM/OEM 제품을 미국,중국,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 공급하며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함.</li> <li>• (주)아이티켐:글로벌 제약사를 주요 고객으로 CMO/CDMO 사업을 전개하며 차세대 의약품 소재를 공급해 글로벌 공급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li> <li>• (주)펩트론:약효 지속성 펩타이드 의약품의 글로벌 임상,CDMO 및 기술 이전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물류 및 유통이 필수적임.</li> </ul>
<p>③ <b>'R&amp;D-임상-생산-유통' 연계 가속화 모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바이오사이언스(주):백신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상업화,유통 전 과정을 수행 하며 송도 R&amp;PD센터를 통해 R&amp;D-생산-유통 연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li> <li>• SK바이오팜(주):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FDA 승인까지 전 과정을 독자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 및 임상 역량을 갖추고 있음.</li> <li>• (주)대웅제약:자체 신약 개발,글로벌 임상,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생산 역량 (CMO/CDMO)을 통해 R&amp;D-임상-생산-유통 전 단계 연계가 가능함.</li> <li>• (주)알테오젠:신약 개발 및 상업화에 집중하며 글로벌 임상과 자체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R&amp;D,임상,생산,유통 역량 연계가 가능함.</li> <li>• (주)랩지노믹스:분자진단 및 NGS 기반 진단 서비스 개발,체외 진단 키트 생산,글로벌 공급 등 진단 분야에서 R&amp;D-생산-유통 연계 역량을 갖추고 있음.</li> <li>• (주)테라젠바이오:AI 기반 신약 개발 및 맞춤형 암 백신 개발,유전체 분석 서비스 제공 등 R&amp;D 및 임상 연계에 해당함.</li> <li>• (주)진매트릭스:분자진단 키트/기기 개발 및 글로벌 공급,백신 개발 및 임상 진입 준비 등 R&amp;D-생산-유통/임상 연계에 해당함.</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올릭스:RNAi 기술 기반 신약 개발,글로벌 임상,기술 이전을 통한 상업화 추진 등 R&amp;D-임상-유통 연계에 해당함.</li> <li>• (주)큐라클:혈관 질환 치료제 개발,글로벌 임상,기술 이전을 통한 상업화 추진 및 API 사업 흡수를 통해 R&amp;D-임상-생산-유통 연계가 가능함.</li> <li>• (주)바이오케스트라:RNA 기반 뇌 질환 치료제 개발,글로벌 임상 진입 준비,기술 이전을 통한 상업화 등 R&amp;D-임상-유통 연계에 해당함.</li> <li>•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박테리오파지/엔도리신 기반 신약 개발,글로벌 임상 추진,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 등 R&amp;D-임상-유통 연계가 가능하며 진단키트 생산 및 수출도 함.</li> <li>• (주)셀바이오텍: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임상,생산,글로벌 CDMO/파트너십 등 R&amp;D-임상-생산-유통 연계 역량을 갖추고 있음.</li> <li>• (주)펩트론: 약효 지속성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 글로벌 임상, 생산 능력 확대 및 글로벌 CDMO, 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 등 R&amp;D-임상-생산-유통 전 단계 연계에 해당함.</li> </ul>

□ 반도체 산업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p>①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생산 및 공급망 연계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알파칩스: 시스템반도체 개발 및 설계, 특히 차세대 AI 반도체 R&amp;D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에이직랜드: 주문형 반도체 설계 및 턴키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IoT, 자동차 등 분야의 초미세 공정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에이디테크놀로지: 첨단 미세공정 및 2.5D/3D 패키징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AI, HPC, 자동차 분야 턴키 프로젝트 수주를 늘리고 있음.</li> <li>• (주)그린칩스: ASIC/FPGA 설계 및 개발, 센서 반도체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핵심 부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퀵리타스반도체: 초고속 인터커넥트 IP 전문 기업으로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등 분야에 IP를 공급하며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li> <li>• (주)아이언디바이스: 혼성신호 SoC 설계(오디오, 파워IC)를 전문으로 하며 전기차, 산업용, IoT, 로봇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li> <li>• (주)마미엘: IoT, 가전, 헬스케어용 전자제품 개발 및 회로, PCB, 펌웨어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AI·IoT 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li> <li>• 비전넥스트(주): 영상보안·AI·컴퓨터비전 반도체 설계(팹리스)를 전문으로 하며 로봇,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li> <li>• (주)싸이닉솔루션: 시스템반도체 디자인하우스로서 첨단 센서 설계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르네사스디자인코리아: 비메모리용 IC 설계를 전문으로 하며 자동차, 산업, 가전, 정보통신 분야 제품 개발 및 자율주행·EV용 고성능 반도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음.</li> <li>• (주)아나패스: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T-Con, TEDIC) 설계(팹리스) 전문 기업으로, AIPC 등 신시장에 대응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li> <li>• (주)라운텍: AR/VR/MR용 마이크로디스플레이 및 SoC 설계 전문 기업으로 초소형·초저전력·고해상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넥스트칩: 자율주행 및 ADAS용 차량용 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 기업으로 로봇, UAM 등 차세대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p>② 고부가가치 후공정 (OSAT) 및 소재/부품 집적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에이디테크놀로지: 첨단 미세공정 설계뿐 아니라 2.5D/3D 패키징 등 후공정 연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그린칩스: 고급 패키징·테스트 서비스 등 토탈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함.</li> <li>• (주)트리노테크놀로지: 자동차용 전력반도체 특화 솔루션 기업으로 SiC 전력반도체 생산 FAB을 구축 및 양산하고 있음.</li> <li>• 매그나칩반도체(유): 자동차, 산업, AI, 스마트홈 등 다양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전력 반도체(파워 디스크리트·파워 IC) 기업으로,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시그네틱스(주):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전문 기업으로, 첨단 패키징 기술 및 생산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음.</li> <li>• 엘비세미콘(주): 시스템반도체 및 메모리 패키징 분야에서 사업을 다각화하며 AI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음.</li> <li>• (주)에이치피에스피: 세계 유일의 고압 수소 어닐링(HPA) 장비 제조사로, 초미세 공정 장비를 공급함.</li> <li>• 스템코(주):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COF 및 IC 전원 공급 핵심 부품 ID-Coil을 양산하는 소재 부품 기업임.</li> <li>• 에스케이스페셜티(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며, 웨트 케미칼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li> <li>• 듀폰스페셜티프로덕츠코리아(유): 첨단 반도체 소재(EUV 포토레지스트, CMP 슬러리/패드)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소재 기업임.</li> <li>• 하나머티리얼즈(주): 실리콘(Si) 및 실리콘카바이드(SiC) 기반의 반도체 식각 공정용 부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소재 부품 기업임.</li> <li>• 한국후지필름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이미지센서용 컬러 레지스트 및 CMP 슬러리 등 반도체 웨이퍼 연마 소재를 생산하는 소재 기업임.</li> <li>• (주)엘케이엔지니어링: 반도체 제조장비 핵심 부품(정전척 ESC)을 개발 및 생산하고, ESC 수리/재생 기술을 국산화한 장비 부품 기업임.</li> <li>• 서울엔지니어링(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SW 개발·제조·판매.</li> </ul>
<p>③ 첨단 응용 분야 연계 반도체 솔루션 개발 허브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알파칩스: 초저전력 NPU, 엣지 컴퓨팅용 AI반도체 등 차세대 응용 분야 R&amp;D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에이직랜드: AI, IoT, 5G, 데이터센터, 자동차 등 4차 산업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 설계 솔루션을 제공함.</li> <li>• (주)에이디테크놀로지: AI, HPC, 자동차,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턴키 프로젝트 수주를 늘리고 차세대 AI반도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음.</li> <li>• (주)그린칩스: 센서,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핵심 부품 기술을 확보하고 AI·IoT 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li> <li>• (주)파두: AI데이터센터용 고성능 SSD컨트롤러 및 모듈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퀄리타스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모바일 등 고부가가치 응용 분야에 특화된 인터페이스 IP를 공급함.</li> <li>• (주)하이딥: 모바일 및 웨어러블 기기용 터치 IC와 스타일러스 솔루션 등 첨단 응용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아이언디바이스: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산업기기 등 다양한 응용처에 고성능 오디오 및 파워IC를 공급함.</li> <li>• (주)마미엘: IoT, 가전, 헬스케어용 전자제품을 개발하며 AI·IoT 첨단 기술 융합.</li> <li>• 비전넥스트(주): 영상보안·AI·컴퓨터비전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으며, 보안 카메라 외 로봇,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li> <li>• (주)트리노테크놀로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산업용 인버터, 가전 등 고성장 시장을 겨냥한 자동차용 전력반도체에 특화되어 있음.</li> <li>• 매그나칩반도체(유): 자동차, 산업, AI, 스마트홈, 가전 등 다양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전력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li> </ul>

□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p>① 글로벌 MRO 및 항공물류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대한항공: 인천 영종도에 신 엔진 정비 공장을 건설 중이며, MRO 역량 강화로 인천의 글로벌 MRO 허브 모델에 부합함.</li> <li>• 아시아나항공(주): 대한항공과의 통합 및 위탁 계약을 통해 국내 MRO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li> <li>• (주)샤프테크닉스케이: 인천에 위치한 항공기 부품 및 엔진 부품 MRO 전문 기업으로, 고부가가치 부품 MRO 및 기술 고도화 모델에 해당함.</li> <li>• 한국항공서비스(주): 항공기 기체 및 부품 MRO 전문 기업으로, 고부가가치 MRO 서비스를 제공하여 MRO 역량 강화 모델에 부합함.</li> <li>• (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 항공기 부품 설계, 생산, 정비 및 시험 평가 전문 기업으로, 차세대 항공기 부품 MRO 및 제조 분야에 해당함.</li> <li>• (주)제주항공: 인천공항 화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MRO 부품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주)티웨이항공: 인천국제공항에 자체 항공기 정비 시설을 구축 중이며, 인천 MRO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함.</li> <l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서, MRO 사업 전개 및 첨단 항공 정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li> <li>•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항공 엔진 MRO 통합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항공 엔진 MRO 및 첨단 기술 개발 분야에 해당함</li> </ul>
<p>② UAM 및 드론 기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허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자동차(주):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며, 국내 컨소시엄을 통해 UAM 인프라 개발 및 실증에 나서고 있음.</li> <l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UAM 그랜드챌린지 등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UAM 기체용 모터 등 핵심 부품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li> <li>• 한화시스템(주): K-UAM 컨소시엄을 통해 UAM 시범 사업 및 상용화를 추진하며, eVTOL 기체 개발 및 UAM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음.</li> <li>• 에스케이텔레콤(주): K-UAM 컨소시엄을 통해 UAM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 및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케이티: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 교통 관리 시스템 개발, MaaS 플랫폼을 통한 교통 연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li> <li>• (주)엘지유플러스: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 및 UAM 교통 관리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음.</li> <li>• (주)카카오모빌리티: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UAM 서비스 플랫폼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li> <li>•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 국가 R&amp;D 과제를 통해 UAM 기체 개발 및 실증에 참여하며, 친환경 UAM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li> <li>• 엘아이지넥스원(주): 방산 및 항공 분야 첨단 기술을 UAM 생태계에 적용하여 기체 탑재체, 지상 통제 시스템 등 UAM 운용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있음.</li> </ul>
<p>③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물류 및 스마트 시티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전기차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고성능 배터리 솔루션을 공급하여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인 에너지 기술을 제공함.</li> <li>• 하나마이크론(주): 자율주행차용 라이더 사업에 진출하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함.</li> <li>• (주)텔레칩스: AI와 자율주행 기술 통합을 위한 ADAS칩 및 시가속기를 개발하며,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함.</li> <li>• 현대건설(주): 스마트시티 연계 모빌리티 허브 콘셉트 연구를 진행하여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될 수 있음.</li> <li>• (주)케이티: MaaS 플랫폼을 통해 UAM과 지상 교통 수단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 시티 인프라에 기여할 수 있음.</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지상 교통과 UAM을 연계하는 MaaS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 물류 및 스마트 시티 연계 서비스 분야에 해당함.</li> <li>• 파이버프로: 자율주행차, 드론, UAM 등에 적용 가능한 고정밀 관성 측정 장치(IMU)를 개발 및 공급하여 센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동운아나텍: 라이다용 반도체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자율주행차 및 산업용 자동화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li> <li>• (주)아이티엘: AI기반 영상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안전 보조 장치(ADAS) 및 V2X 통신 표준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li> <li>• (주)아이엠: 자동차 전장 및 모빌리티 분야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자율주행차 인프라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함.</li> <li>• (주)마이크로인피니티: 자율주행차, 드론, UAM 등에 적용 가능한 항법 센서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음.</li> </ul>
<p>④ 첨단 기술 전문 모빌리티 R&amp;D 및 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자동차(주): UAM 기체 개발, 자율 비행, AI 등 첨단 기술 R&amp;D에 집중 투자하며 R&amp;D 허브 모델에 해당함.</li> <l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예측 정비, 자동화, 미래형 항공기 등 R&amp;D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및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음.</li> <li>• 한화시스템(주): UAM 플랫폼 개발, 항행-관제 등 AI/빅데이터 기반 기술 R&amp;D를 지속하며 첨단 기술 R&amp;D 허브 모델에 해당함.</li> <li>• 에스케이텔레콤(주): UAM 교통 관제, 예측 정비 등 ICT 기술 R&amp;D에 집중하며 첨단 기술 R&amp;D 허브 모델에 해당함.</li> <li>• (주)케이티: UAM 교통 관제, 예측 정비 등 ICT 기술 R&amp;D를 추진하며 AI, 빅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엘지유플러스: UAM 교통 관리, 예측 정비 등 ICT 기술 R&amp;D를 진행하며 통신 기반 운항 안전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li> <li>• (주)카카오모빌리티: UAM 기체 및 서비스 운영 안전/인증 기준 개발, AI/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고도화 등 R&amp;D를 추진하고 있음.</li> <li>• (유)솔라엠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배터리 셀 핵심 소재 개발 및 고출력/장수명 배터리 R&amp;D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li> <li>• 하나마이크론(주): 라이다 센서용 광학 부품 및 VCSEL 등 핵심 기술 R&amp;D, 첨단 패키징 기술 연구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음.</li> <li>• (주)텔레칩스: AI기반 비전 프로세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 R&amp;D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동운아나텍: 라이다용 반도체, 차량용 전장 IC 등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술 개발 R&amp;D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아이티엘: AI기반 영상 인식 알고리즘, 스마트시티/IoT 기반 통신 기술, V2X 표준 기술 등 융합 기술 R&amp;D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포인투테크놀로지: 자율주행차용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 R&amp;D 및 차세대 아키텍처 연구를 확대하고 있음.</li> <li>• (주)세코닉스: 자율주행차용 고해상도 카메라 렌즈/모듈, 라이다/HUD 광학 렌즈 등 차세대 광학 기술 R&amp;D를 확대하고 있음.</li> <li>• (주)옵트론텍: 자율주행차용 고화질 렌즈 및 라이다용 광학 모듈 등 차세대 자동차 부품 R&amp;D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li> <li>• (주)엘엠에스: 자율주행차용 고정형 라이다 센서 핵심 부품 R&amp;D에 집중하며 다양한 산업용 신기술 R&amp;D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li> <li>• (주)모빌테크: 센서 융합, 실시간 객체 인식/위치 정보 모니터링, 디지털 트윈 등 자율주행차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R&amp;D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세미코어: 자동차 센서, 광학 필터 등 자율주행차 부품 생산에 최적화된 신기술 및 장비 개발 R&amp;D를 추진하고 있음.</li> <li>• (주)피델릭스: 차량용 고신뢰성 메모리 반도체 개발 R&amp;D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아이엠: 자동차 전장 및 자율주행 관련 부품 개발 R&amp;D에 집중하고 있음.</li> </ul>

□ 물류 산업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p>① 초고도화된 글로벌 인프라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씨제이대한통운(주):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3자물류(3PL) 서비스와 첨단 물류 허브 운영 경험을 통해 인천의 글로벌 인프라 활용 모델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주)선광: 인천항에서 첨단 인프라를 운영함.</li> <li>• (주)영진공사: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종합물류 서비스 및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 활용 모델과 연계될 수 있음.</li> <li>• 기제냉동물류(주): 의약품 등 온도 민감 화물에 특화된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와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li> <li>• (주)해성물류: 냉동·냉장품 및 특수화물 운송 역량 보유함.</li> <li>• (주)한익스프레스: 특수화물 운송, 콜드체인, 국제물류 등 종합적인 역량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 활용 모델과 연계될 수 있음.</li> <li>• (주)농협물류: 냉동·냉장 시스템을 활용한 신선식품 운송 경험을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 처리 및 콜드체인 물류에 기여할 수 있음.</li> </ul>
<p>② 스마트 물류 시스템 및 물류집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씨제이대한통운(주): 로봇·AI 기반 자동화 기술 상용화 및 확대를 통해 스마트 및 자동화 물류 시스템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li> <li>• 쿠팡(주): AI·로봇 기술을 물류센터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 및 자동화 물류 시스템 구축 모델에 적합함.</li> <li>•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AI·로봇 기반 자동화 설비를 물류센터에 적극 도입하여 자동화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 집적 모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li> <li>•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AI 기반 첨단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자동화·로봇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 및 자동화 물류 시스템 집적 모델의 핵심 타겟임.</li> <li>• (주)이스틸포유: AI·빅데이터 기반 물류 최적화 및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물류 시스템 개발 측면에서 모델과 연관됨.</li> <li>• (주)선광: 항만 자동화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항만 물류 자동화 및 스마트화 측면에서 모델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주)영진공사: 항만 자동화, 실시간 정보 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 기술 도입을 통해 항만 물류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 측면에서 모델과 연관됨.</li> <li>• 기제냉동물류(주): 냉동·냉장 물류센터 자동화,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물류 기술 도입으로 콜드체인 분야 스마트화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주)세아엘앤에스: 웹 기반 통합 운송관리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역량 측면에서 모델에 적합함.</li> <li>• (주)현대홈쇼핑: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형 물류센터 운영 및 첨단 물류 기술 적용으로 스마트 자동화 물류센터 구축 및 운영 측면에서 모델과 연관될 수 있음.</li> <li>• (주)백마종합물류: 체계적 운송 시스템 및 실시간 위치 정보 기반 IT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 IT 시스템 및 자동화 역량 측면에서 모델에 적합함.</li> </ul>
<p>③ 전략 산업 연계 특화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씨제이대한통운(주): 제약 산업에 특화된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바이오 산업 연계 특화 물류 서비스에 기여함.</li> <li>• 기제냉동물류(주): 의약품 등 온도 민감 품목의 콜드체인 전문 기업으로 바이오 산업 연계 특화 물류 서비스 모델의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해성물류: 냉동·냉장품 및 특수화물 운송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수 품목 운송과 연관될 수 있음.</li> <li>• (주)한익스프레스: 특수화물 및 콜드체인 3PL 서비스를 제공하여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특수 품목 운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li> <li>• (주)농협물류: 신선식품, 농산물 운송 및 보관 서비스를 통해 농식품 바이오 분야와 연계된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주)제때: 3온도대 물류 서비스를 통해 바이오 산업 연계 특화 물류 서비스의 핵심 역량을 제공할 수 있음.</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④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및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씨제이대한통운(주): 산업별 맞춤형 3자물류(3PL) 서비스 강화 및 풀필먼트 서비스 운영 경험을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쿠팡(주): 자체 물류망 기반의 3자물류(3PL) 및 풀필먼트 서비스 확대를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연계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li> <li>•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물류 전 과정을 자동화 및 통합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연계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를 보여줌.</li> <li>•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3PL/4PL 등 통합 물류 서비스와 연관될 수 있음.</li> <li>• (주)선광: 3자 물류(3PL) 및 맞춤형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모델에 적합함.</li> <li>• (주)영진공사: 3자물류(3PL) 및 국제물류 서비스 등 종합 물류 서비스를 운영하여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모델에 적합함.</li> <li>• 기제냉동물류(주): 맞춤형 포장, 재고관리 등 통합 3자물류(3PL) 서비스를 제공하여 3PL 및 포장 등 가공 활동과 연관될 수 있음.</li> <li>• (주)해성물류: 3자물류(3PL) 및 수출포장 서비스 등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3PL 및 포장 등 가공 활동과 연관될 수 있음.</li> <li>• (주)아이씨비: 중국 역직구 배송 등 국제 물류 서비스 및 물류와 결제를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연계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모델에 부합함.</li> <li>• (주)한익스프레스: 상·저온 3PL 및 전자상거래 업체 대상 풀필먼트/3PL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모델에 부합함.</li> </ul>

□ 관광 산업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① 글로벌 허브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호텔롯데: 국내 최대 호텔 체인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운영하며 복합 관광 및 MICE 모델에 부합함.</li> <li>• (주)호텔신라: 5성급 호텔, 글로벌 면세점, MICE 시설 등을 운영함.</li> <li>• (주)조선포털앤리조트: 호텔-레저 복합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복합 관광 모델의 타겟이 될 수 있음.</li> <li>• 파르나스호텔(주): 5성급 호텔 및 MICE 시설 운영, 글로벌 호텔 브랜드와의 협업 확대로 프리미엄 복합 관광 모델과 연관성이 있음.</li> <li>• (주)코엑스: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센터로 MICE 산업의 핵심 거점.</li> <li>• (주)킨텍스: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센터로 MICE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MICE 관광 모델에 부합함.</li> <li>• 에이치엠엠(주), 팬오션(주), 대한해운(주), 장금상선(주): 해운/물류가 주력 사업이나, 크루즈 운항 또는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 연계 가능성이 있음.</li> </ul>
② 다채로운 해양·섬 테마 관광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씨월드고속훼리(주): 국내 최대 연안 여객선사로 해양관광 플랫폼을 지향하며 인천의 해양/섬 테마 관광에 매우 적합함.</li> <li>• 한라의료재단: 국내 최초 체류형 메디컬 리조트를 설립하여 의료와 웰니스를 결합한 모델을 실현, 인천의 해양치유 및 웰니스 관광 모델에 해당함.</li> <li>• (학)가톨릭학원, 서울대학교병원, (의)삼성의료재단, (의)명지의료재단: 의료관광을 적극 추진하며 인천의 의료-관광 융합 모델의 타겟이 될 수 있음.</li> <li>• (주)호텔롯데, (주)호텔신라, (주)조선포털앤리조트, 파르나스호텔(주): 리조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섬 테마 리조트 개발/운영 기업으로 고려될 수 있음.</li> <li>• (주)이월드, 조원관광진흥(주), (주)서울랜드: 테마파크 운영사로서 해양/섬 테마 관광 시설 개발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p>③ K-콘텐츠 및 한류 융합 관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호텔신라: AI/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스마트 관광 및 문화 콘텐츠 융합 모델에 부합함.</li> <li>• (주)조선폰텔앤리조트: AI 기반 서비스 로봇 개발 및 호텔 내 실증을 통해 로봇 활용 스마트 관광 모델에 해당함.</li> <li>• 파르나스호텔(주): 디지털 전환(DX) 가속화 및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해 스마트 관광 모델과 연관됨.</li> <li>• (주)코엑스: ICT/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공간 혁신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로 첨단 기술 및 문화 콘텐츠 융합 모델에 적합함.</li> <li>• (주)킨텍스: 스마트 전시장 구축 및 MICE+엔터테인먼트 융합 등 혁신 사업 발굴로 스마트 관광 및 문화 콘텐츠 융합 모델에 부합함.</li> <li>• (주)지엠컴: 디지털/미디어아트, ICT 기반 첨단 관광 마케팅 콘텐츠 개발로 K-콘텐츠 및 한류 융합 관광 모델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음.</li> </ul>
<p>④ 전략 산업 연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관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이치엠엠(주), 팬오션(주), 장금상선(주), 대한해운(주): 첨단 물류 시설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될 수 있음.</li> <li>• 씨월드고속훼리(주): 항만/선박 관련 체험 요소를 결합한 산업 관광 모델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학)가톨릭학원: 의료/바이오/연구 융합 복합단지(옴니버스 파크)를 통해 바이오 산업 시설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음.</li> <li>• 서울대학교병원, (의)삼성의료재단, (의)명지의료재단, 한라의료재단: 첨단 의료/연구 시설을 보유하여 바이오(의료) 산업 시설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음.</li> <li>• (주)코엑스, (주)킨텍스: MICE 전문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및 산업 관광 전문 여행사 또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음.</li> <li>• (주)지엠컴,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관광/MICE 관련 프로모션, 이벤트 대행사로서 산업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하는 데 관여할 수 있음.</li> <li>• 조원관광진흥(주): 산업/문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산업 현장 체험 요소를 결합한 관광 상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li> </ul>

□ 수소 산업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p>① 글로벌 물류/모빌리티 연계 수소 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진하이솔루스(주):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대규모 수소 운송 및 저장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어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및 운송 인프라 모델에 부합함.</li> <li>• (주)에스디지, (주)에스피지산업, (주)에스피지수소: 전국적인 수소 공급 네트워크와 차량용 수소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소 운송 및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 해당 모델의 타겟에 해당함.</li> <li>• 덕산에테르씨티(주): 국내 유일의 초대형 고압 수소 용기 전문 제조사로, 대용량 수소 운송/저장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어 물류/모빌리티 연계 인프라 모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li> <li>• (주)이엠솔루션: 국내 수소 충전소 건설 및 운영 경험이 가장 많은 기업 중 하나로,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측면에서 적합한 타겟임.</li> <li>• 범한퓨얼셀(주): 잠수함용, 건물용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수소 충전 인프라 모델과 관련이 깊음.</li> <li>• 광신기계공업(주): 국내 최초로 수소 압축기를 국산화한 기업으로, 수소 충전소 핵심 설비 공급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p>② 탄소 포집 연계 생산 및 수소 공급 산업 허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신화학(주):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CCU 연계 청정 수소 생산 및 산업 공급 모델에 부합함.</li> <li>• (주)원일티엔아이: 수소 개질기와 탄소 포집(CCUS) 기술을 결합한 블루수소 생산 사업에 진출해 있어 탄소 배출원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탄소를 포집하는 모델과 관련이 있음.</li> <li>• 두산퓨얼셀(주): 수소 연료전지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소 탄소 배출 저감 실증을 완료하여 CCU 기술 개발 측면에서 해당 모델과 관련이 있음.</li> <li>• (주)에스디지, (주)에스피지산업, (주)에스피지수소: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국가 기간산업에 초고순도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존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소 생산 및 공급 모델에 해당함.</li> <li>• (주)바이오프랜즈: 천연가스 플라즈마 열분해 기반 청록수소 생산 및 CCU 연계 저탄소 연료 사업, e-Fuel 기술 개발 등 탄소 포집 및 활용을 통한 수소/연료 생산 기술 개발 측면에서 해당 모델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제앤케이글로벌: 인천 서구 왕길동에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기 구축 중</li> <li>• 빅텍스: 인천 서구 위치, CCU 생산, CO<sub>2</sub> 활용 기업</li> </ul>
<p>③ 스마트시티 및 테마별 특화 수소 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스퓨얼셀(주): 국내 건물·가정용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스마트 빌딩/주거 시설에 수소 에너지를 적용하는 모델에 적합함.</li> <li>• 범한퓨얼셀(주): 건물용 연료전지(5/6/10kW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스마트시티 내 건물 에너지 공급 모델과 관련이 있음.</li> <li>• (주)안파트너스, (주)이스퀘어이앤씨, (주)엘케이에너지, (주)세양이엔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수소 전문 기업으로,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스마트시티 및 친환경 시설에 수소 에너지를 응용하는 모델에 특화 되어 있음.</li> <li>• 두산퓨얼셀(주):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하며 데이터센터 등 대형 수요처를 겨냥 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빌딩/산업단지 모델에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급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li> <li>• (주)미코파워: 발전용 SOFC 연료전지 시스템에 집중하며 데이터센터 등 대형 수요처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 스마트시티 내 분산 전원 및 에너지 자립 모델과 연관될 수 있음.</li> <li>• (주)원일티엔아이: H-ESS(수소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상용화하여 재생에너지와 연계, 에너지 자립형 건물/산업단지 모델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li> </ul>
<p>④ 미래 수소 기술 R&amp;D, 테스트베드 및 전문 인력 양성 허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원일티엔아이: 차세대 경량 수소 저장 합금, 액화 수소 저장 용기 등 신기술 R&amp;D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li> <li>• 범한퓨얼셀(주): 액화 수소 충전소 핵심 부품, 암모니아/LNG 연료전지 등 신기술 R&amp;D를 강화하고 있음.</li> <li>• (주)이엠솔루션: 수전해/수소 플랜트/충전소 핵심 부품 국산화 및 독자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대하: 액화 수소 충전소용 펌프 등 핵심 기술 국산화 및 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li> <li>• (주)제이앤티지: 3세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용 GDL 등 차세대 핵심 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li> <li>• 가드넥(주): 후막 GDL, PEM/AEM 수전해용 소재 등 미래형 소재 연구에 투자하고 있음.</li> <li>• (주)유한정밀: 초박판 분리판, 고내식/저가형 코팅 등 핵심 R&amp;D를 추진하며 미래형 수소차/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 대응하고 있음.</li> <li>• (주)지필로스: ALK/PEM 수전해 시스템 자체 기술 개발 및 양산 체제를 확립하고,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미래 수소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li> </ul>

□ 기후테크 산업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p>① 탄소 포집 및 활용(CCU) 모델의 산업 연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니드: CCUS 및 직접공기포집(DAC)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수전해(그린수소), 수소, 이차전지 등 기후테크 신사업 진출 및 스타트업 지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li> <li>• 린데코리아(주): CCUS 사업을 본격화하며 CO<sub>2</sub> 포집, 액화, 저장, 해상 운송 등 전주기 솔루션을 개발 및 실증 중임.</li> <li>• (주)에어퍼스트: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 도입 등 수소 경제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음.</li> <li>• (주)엘앤에프: 사업 추진 현황에 CCUS 기술 도입 노력이 언급되어 있음.</li> <li>• (주)블루플래닛: 저탄소 건축 자재, 탄소포집(CCUS) 등 글로벌 저탄소 기술과의 협력 및 상용화에 관심을 두고 있음</li> </ul>
<p>② 녹색산업계 금융투자전략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에스디아이(주): RE100 목표,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경영을 적극 추진하며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li> <li>• (주)엘지에너지솔루션: RE100, EV100, 탄소중립 등 강력한 친환경 목표를 추진하며 대규모 설비 투자 및 합작법인을 확대하고 있음.</li> <li>• 에스케이온(주): 넷제로 달성 목표, 배터리 생애 주기 친환경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li> <li>• (주)엘앤에프: 탄소중립 로드맵, RE100 목표 등 ESG 경영을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li> <li>• (주)에코프로비엠: 탄소중립 실현 목표, ESG 경영 강화 등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기울이며 생산 능력 및 연구 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li> <li>• (주)다사론: 신재생 에너지 사업(태양광)을 추진하며 R&amp;D 및 사업화 투자 확대.</li> <li>• (주)해중: 재생 에너지 발전량 예측, VPP, RE100 이행 지원 등 기후테크 솔루션을 개발하며 IT-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사업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li> <li>• 효성전기(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며 대규모 설비 투자 및 신사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li> <li>• (주)지엔씨에너지: 바이오가스 발전소 운영,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장 등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외 발전소 인수를 포함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li> <li>• 오씨아이(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달성, 친환경 제품/투자 확대 등 기후 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신사업 및 생산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li> <li>• (주)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폐기물 에너지화, 매립가스 저감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 경제 기술 연구에 집중하며 해외 시장 진출 및 연구 인프라 구축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li> <li>• (주)세미파이브: 에너지 효율성과 저전력 특성이 중요한 분야의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며 저전력·고효율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음.</li> <li>• 한국해상풍력(주):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li> </ul>
<p>③ 스마트 환경기후 관리를 위한 솔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해중: AI-인공위성 기반 발전량 예측, VPP, 스마트홈 HEMS 등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 연구를 통해 스마트시티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주)지엔씨에너지: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시스템, 연료전지 발전소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및 EPC 서비스를 제공함.</li> <li>• 오씨아이(주): 에너지 솔루션(열병합 발전, 태양광 발전소 등) 및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친환경 융합 서비스를 추진함.</li> <li>• 린데코리아(주): LNG냉열을 활용한 CO<sub>2</sub> 액화·저장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연계 모델과 관련이 있음.</li> <li>• (주)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폐기물 에너지화, 매립가스 저감 기술을 주력으로 하며, 순환 경제 및 에너지 효율화 모델에 기여할 수 있음.</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④ 미래 기후테크 R&D 및 실증 지원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니드: CCUS, DAC, 수전해 등 기후테크 핵심 기술 R&amp;D 및 신사업 스타트업 지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li> <li>• 린데코리아(주): 대규모 액화수소 인프라, 해상 그린수소 생산 등 수소·기후테크 R&amp;D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있음.</li> <li>• (주)세미파이브: 에너지 효율성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플랫폼 및 차세대 기술(칩렛, 저전력 설계) R&amp;D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삼성에스디아이(주), (주)엘지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온(주), (주)엘앤에프, (주)에코프로비엠: 모두 차세대 배터리 및 소재 개발에 집중 투자하며 미래 에너지 기술 R&amp;D 허브 모델과 부합함.</li> <li>• (주)해중: AI-머신러닝 기반 에너지 예측, VPP/EMS 핵심 기술 등 에너지 IT 분야 R&amp;D 역량이 뛰어남.</li> <li>• 효성전기(주): 고효율·친환경 전력 기기, 수소 밸류체인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li> <li>• (주)지엔씨에너지: 바이오가스,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신재생 에너지 및 자원화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있음.</li> <li>• 오씨아이(주): 반도체/이차전지용 신소재, 친환경 공정,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amp;D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있음.</li> <li>• (주)부원리사이클링, 희성피엠텍(주): 전자 폐기물 고효율 분리·회수, 귀금속 정제 등 스마트 리사이클링 및 친환경 공정 기술 R&amp;D에 집중하고 있음.</li> </ul>

□ 로봇 산업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① 글로벌 스마트 물류/모빌리티 로봇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엔티렉스 (NTREX): 물류 자동화 로봇(AGV) 및 드론-지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 등을 개발하며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어 입지적으로 유리함.</li> <li>• (주)유진로봇 (YujinRobot): 자율주행 물류로봇(AMR)과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솔루션에 집중하며 인천(송도)에 위치하고 있음.</li> <li>• (주)시스콘로보틱스 (SYSCONROBOTICS): 자율주행 물류로봇(AGV, AMR) 및 무인지게차를 중심으로 제조·유통·물류 산업에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며, 인천 로봇랜드 R&amp;D 센터에 위치하여 모델 구현에 최적화된 기업임.</li> <li>• 에이치디현대로보틱스(주) (HDHyundaiRobotics): 산업용 로봇 외 모바일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며, 물류 공정에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로보스타 (Robostar): 배터리·전자·전기 산업용 AGV/AMR 등 물류 이송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함.</li> <li>• (주)티로로보틱스 (T-Robotics): 공장 자동화용 자율주행 물류로봇(AMR) 사업을 본격화하여 이차전지·반도체·완성차 등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음.</li> <li>• (주)알파로보틱스 (ALPHAROBOTICS): 자율주행 배송 로봇(AMR), 겐트리 로봇 등 물류 자동화에 적용될 수 있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레인보우로보틱스 (RAINBOWROBOTICS): 자율주행 로봇(AMR), 소형 물류 로봇 등 이동 및 물류 관련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디에스이엔티 (DSENT): PCB 생산 라인용 자동화·무인화 장비, 특히 내부 물류 자동화에 특화된 솔루션을 공급함.</li> <li>• (주)로봇앤디자인 (Robot and Design): 반도체, 바이오, 의료 분야의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며, 고정밀 이송 및 제어 기술을 물류 자동화에 응용할 수 있음.</li> </ul>
② 산업 특화 자동화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엔티렉스 (NTREX): 물류 자동화 로봇(AGV) 및 메카넬링 기반 로봇, 드론-지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 등을 개발하며 물류/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어 입지적으로 유리함.</li> <li>• (주)유진로봇 (YujinRobot): 자율주행 물류로봇(AMR)과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솔루션</li> </ul>

핵심 타겟팅 분야	타겟기업 선정 및 선정 이유
	<p>루선에 집중하며, 공장·창고 등 다양한 산업군에 로봇아이제이션 솔루션을 제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시스콘로보틱스 (SYSCONROBOTICS): 자율주행 물류로봇(AGV, AMR) 및 무인지게차를 중심으로 제조·유통·물류 산업에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함. 인천 로봇랜드 R&amp;D 센터에 위치함.</li> <li>• 에이치디현대로보틱스(주) (HDHyundaiRobotics): 산업용 로봇 외 모바일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며, AMR 연동 솔루션 등 로봇 생태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음.</li> <li>• (주)로보스타 (Robostar): 배터리·전자·전기 산업용 AGV/AMR 등 물류 이송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함.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통해 물류 자동화와의 연계가 가능함.</li> <li>• (주)티로보틱스 (T-Robotics): 2023년부터 공장 자동화용 자율주행 물류로봇(AMR) 사업을 본격화하여 이차전지·반도체·완성차 등 대기업에 공급함.</li> <li>• (주)알파로보틱스 (ALPHAROBOTICS): 자율주행 배송 로봇(AMR), 겐트리 로봇 등 물류 자동화에 적용될 수 있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레인보우로보틱스 (RAINBOWROBOTICS): 자율주행 로봇(AMR), 소형 물류 로봇(RBM 시리즈) 등 이동 및 물류 관련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주)디에이엔티 (DSENT): PCB 생산 라인용 자동화·무인화 장비, 특히 내부 물류 자동화에 특화된 솔루션을 공급함.</li> <li>• (주)로봇앤디자인 (Robot and Design): 반도체, 바이오, 의료 분야의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며, 고정밀 이송 및 제어 기술을 물류 자동화에 응용할 수 있음.</li> </ul>
<p>③ <b>로봇 기술 연구 및 사업화 지원 허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엔티렉스 (NTREX): 모터 제어 기반 AI 자동화 로봇 개발, SLAM·Navigation 등 자율주행 및 환경 인식 기술 연구에 적극적이며, 첨단 융합형 로봇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li> <li>• (주)유진로봇 (YujinRobot): R&amp;D 인력 비중이 전체의 45%에 달하며, 자율주행·AI·로봇 관제 등 핵심 기술 내재화 및 특허 250여 건을 보유하고 차세대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시스콘로보틱스 (SYSCONROBOTICS):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전반의 자체 기술 내재화, 제품·기술 표준화 및 모듈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AI·로봇 관제·SLAM 등 첨단 기술 연구 및 신규 산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li> <li>• 에이치디현대로보틱스(주) (HDHyundaiRobotics): 글로벌 R&amp;D 센터 내 로보틱스 연구소를 운영하며, 신규 산업용 로봇 개발, 제어기 고도화, AI·딥러닝 기반 비전 및 자율화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li> <li>• (주)두림야스카와 (DOOLIM-YASKAWA): 도장 엔지니어링 빅데이터와 AI를 접목한 차세대 도장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서울대와 산학 협력 등 연구 개발에 적극적임.</li> <li>• (주)로보스타 (Robostar): AI 기반 스마트 로봇 제어 시스템, 고정밀 로봇 등 첨단 로봇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외부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차세대 로봇 상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li> <li>• (주)티로보틱스 (T-Robotics): 자체 진공 로봇 기술력을 보유했으며, 자율주행·비전 인식·AI 등 미래 핵심 기술 선행 연구를 확대하고 있음.</li> </ul>